

20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체험수기

희망으로 피어난 행복일자리



안전행정부

Contents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 사례	008
------------------	-----

서울

출근 할 곳이 있다는 건 크나큰 삶의 활력소 김경현	017
행복 일자리, 행복의 씨앗 정도수	019
폐현수막은 사랑을 싣고 유연숙	021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 알리미, 나는 국제의료통역사입니다! 박 따찌아나	024
꿈에 날개를 달아 준 포근한 일자리 캔노이파리사	028
도심 속 행복 텃밭 만들기 김상고	031
일의 소중함을 배우다 김기현	034
일하는 기쁨. 넉넉한 마음 손범동	036

부산

밝고 산뜻한 산복도로 만들기 이교욱	041
행복을 나누는 어머니라 동화나라 정수영	044
닥종이 인형을 만들면서 김혜정	047
취업플러스 보람 강경희	050
[세잎클로버] 가 가져다준 봄 허 장	053
폐현수막의 새로운 탄생 최미경	056

대구

EM 발효액의 신비 천재영	061
만촌동 웅벽미술관 프로젝트 강석원	063
희망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엄숙림	066



인천

기후변화체험관은 나눔 소통의 장	김인열	071
희망 일자리	강국화	074
행복을 가져다준 일자리	채옥필	076
새 지붕, 새 인생	김경성	079

광주

꿈을 이루며 사는 삶	이순미	083
희망의 끈	박동용	086
손때 묻은 문화공간의 탄생	김창래	089
무등산자락에 심은 희망	김현자	091

대전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박혜란	095
우리 아이에게 주는 아빠의 첫 번째 선물	임수진	099
인생 2막, 유성구 신성동에서 출발	고경식	102

울산

행복한 자전거 치료사	고정석	109
나는야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	손말연	112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하며	이은주	115

Contents

세종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일자리 부사격	121
가르치며 배우는 영어수업 크리스티나	125

경기

혼자가 아닙니다 도티탄응야	131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준 일자리사업 박배광	135
이웃과 달콤함을 나누어요 최납실	138
공동체일자리로 따뜻한 겨울나기 박선미	141
땀과 정성으로 피어난 야생화 조광필	144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 백현희	147
정을 나누는 우산무료수선사업 김기안	152
다문화가정방문 출산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원종	155
보리밭 사잇길로 안동찬	157
벽화그리기사업은 희망을 싣고 김보미	159
진심 하나면 충분해 마나라이사이나나벨레알	163
에코하우스와 나 이향근	165
컬트사업으로 피어난 사랑의 열매 유영혜	167
삶의 활력소가 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백재현	169
비누 향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노재현	171



강원

희망 가득한 산천어 燈 야마네요시꼬	177
내게 젊음과 웃음을 준 행복 일자리 최계화	179
설악의 관광명소를 지키는 숨은 주역 김성규	182
참여자분들 덕분에입니다 전인석	185

충북

자립의 그날까지 손병용	191
다시 찾은 내 인생의 희망 김영옥	194
기회를 경력으로 가케히유미꼬	196
우리 모두 하나가 된 共同體 홍성현	198
튼튼한 삶의 버팀목 임종구	202
매일 보람찬 일자리 박순례	204
더 나은 일자리의 출발점 김인엽	207

충남

자랑스러운 나의 일자리 김덕례	213
생태해설사로 인생 3막을 펼치며 안병현	215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준 행복 정영임	219

Contents

전북

녹색자전거를 타 보셨나요 오병훈	223
귀촌 새내기 힘겨워하는 일자리 오정윤	225
허브향 가득한 지역공동체 박상미	227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마을 이정환	230
행복한 일자리, 당당한 우리 가족 하사노바 마트류바	232

전남

희망을 심고 가꾸는 일자리 이문자	237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는 행복한 이주민 레티스영	239
정원박람회장에서 힐링하세요 정영욱	241
우리는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 정현주	243

경북

꽃향기 가득한 우리 동네 김점순	249
흘린 땀방울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자리 이찬주	251
희망의 재봉틀 소리 추계홍	254
꿈의 농장에서 자라난 행복 정유순	256



경남

탈 없는 세상 만들기 박진우	261
따뜻한 봄날의 일자리 김종금	264
슬픔은 싹둑, 희망은 예쁘게 허미정	267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다 팜티조이	270
나 라응억짼, 이제는 라성희입니다. 라성희	273

제주

제2의 인생, 동심으로 날아오르다 나까츠루 미사코	279
-----------------------------	-----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사례

1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 야생갯 재배단지 조성사업

전/북/순/창

- 사업개요 : '13. 4월 ~ 12월, 1일 참여인원 17명(취약계층 15명, 전문가2명)
- 야생갯 재배단지를 조성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또한, 야생 갯김치 담기 및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3.5백만원)
- 동계 장군목축제 개최시 야생갯 꽃과 갯을 이용해 볼거리, 먹거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야생갯 재배현장



갯김치 판매현장

2

지역 전통기술 복원사업 · 전통창호제작기술 전승사업

충/남/논/산

- 사업개요 : '13. 2월 ~ 10월,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3명, 유심진창호 사업장에서 근무
-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통기술 보유 사업장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함으로써 전통기술 전승에 활용
-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전통창호 제작기술 전승을 통해 생산 전문능력을 함양함
- 전통창호 제작 및 전통창호 문양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품 제작,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통창호제작 사업장



전통창호 공예품 제작현장

3 폐자원 활용사업 · 폐가구, 폐의류 재활용사업

경/기/안/산

- 사업개요 : '13. 3월 ~ 10월,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17명
- 폐가구를 수거, 수선하여 소형가구(책꽂이, 다용도함, 모니터받침 등)로 재생산
- 의류 폐천 등을 이용해 다양한 생활소품(팔토시, 앞치마 등) 제작 및 장바구니 사용권장을 위한 리폼 장바구니 제작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1회용품 사용억제에 기여
- 재활용장터 판매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백만원)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 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제작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여



폐가구 재활용품



폐의류 재활용품

4 참여자의 기능기술 활용사업 · 천연비누 제작사업

울/산/중/구

- 사업개요 : '13. 9월 ~ 12월, 1일 참여인원 7명(취약계층 5명, 전문가 2명), 일 50 ~ 60개 비누제작
- 공동작업장을 임대 및 천연비누 제작법을 교육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 여성에게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여성의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율을 제고함
- 천연비누를 제작하여 나눔장터·축제 등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2백만원)하고 물품, 수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 참여자에게 기술습득을 통한 창업 가능성 부여



작업 모습



제품 사진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사례

5 지역유희공간 재활용사업 · 지역 유희공간(구경로당 건물)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강/원/태/백

- 사업개요 : 상장동 일대,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9명
- 구경로당 건물을 생활소품 꾸미기 및 벽화보수 작업들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탄광 이야기 마을 문화체험대상지로 조성
- '13년 전국 관공서 및 마을가꾸기 추진단에서 벤치마킹 및 여름철 관광 캠페인 공익광고에 방송, '12년 국토도시 디자인대전 대상수상



황금곳간 조성사업 전



황금곳간 조성후



영유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6 지역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 감천문화마을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산/사/하/구

- 사업개요 : '13. 3월 ~ 6월,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10명
-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감천문화마을에서 관광객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433명), 문화마을 기념품 판매, 아트숍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9백여만원)
- 또한, 관광객 안내 및 문화마을 공식 인터넷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수 증가 및 문화 마을 시설물 등을 수시 점검관리하여 지역 관광명소 활성화에 기여



관광객 안내



아트숍 운영



도자기 체험

7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 푸석이 동네공원 만들기

울/산/북/구

- 사업개요 :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8명(취약계층 7명, 전문가 1명), 사업량 : 지역 3개 소공원
- 도심속 환경취약지와 자투리 공간을 테마별 공원으로 전환하여 주민 쉼터로 제공하여 주민 소통공간 마련 및 중장기 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마을 중장기 계획('14년까지 10개소 이상 개설 / '12 ~ '13년 8개소 공원조성완료)으로 추진



동네공원 2호점



동네공원 5호점



동네공원 6호점

8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 원주천 힐링로드 조성

강/원/원/주/시

- 사업개요 : '13. 2월 ~ 11월, 소요인력 15명(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제공)
- 다년생 꽃묘식재, 제초작업 등 화단조성 및 표지판,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 3개년 계획으로 다년생 꽃묘를 집중 식재하여 향후 꽃묘예산 투입 절감효과 기대
- 도심에 명품 힐링로드를 조성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연중 휴식장소로 이용



다년생 꽃묘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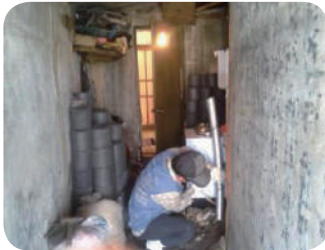
잡초제거 및 주변정리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사례

9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연탄보일러 정비교체 사업

충/남/논/산/시

- 사업개요 : 1일 참여인원 연탄보일러 설치가능한 취약계층 3명
-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연탄보일러 교체경력이 활용 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생산능력 활용



연탄보일러 교체



연탄보일러 교체전



연탄보일러 교체후

10 친환경 생활공간 관리 및 기타국가시책사업 · 자전거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광/주/북/구

- 1일 참여인원 취약계층 15명
-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률에 비해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거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길 이용을 도모
- 또한, 재활용 보도자재(광엑스포 보도블록 철거자재)를 사용해 자전거길 정비하여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예산절감 27,500천원)



자전거길 정비 전



자전거길 정비후

11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공창마을 주민공동작업장 운영

부/산/북/구

- 사업개요 : '13. 7월 ~ 11월, 1일 참여인원 6명(취약계층 4명)
- 공동작업장 마련 → MOU체결(일감지원/인력지원) → 일감공급 및 기술지도 → 공동작업 (봉제작업) → 제품납품 → 수익창출
- 의류봉제관련 물량수주 등 수시교육 실시 및 의류봉제업 부속품(방한복 소매삼각, 건장, 경찰복 하의 주머니 등)을 제작하여 지역 군용피복 전문제작 중소기업에 납품
- 사업참여자는 미싱기술 습득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후 적립기금으로 마을발전에 기여, 연계 지역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인 일감제공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전경



공동 봉제작업 현장

12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맞춤형 상담실 운영

부/산/진/구

- 사업개요 : '13. 3월 ~ 10월, 1일 참여인원 결혼이주여성 4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상담실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편의(육아정보나눔, 다문화이해·컴퓨터·한국어교육)를 제공함
-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기초 생활정보 공유 및 한국어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다문화이해 교육



육아정보나눔터



한국어교육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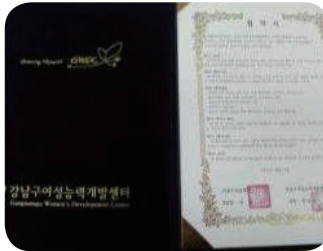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여성활용사업 · 국제 의료통역지원 사업

서/울/시/강/남/구

- 사업개요 : '13. 3 ~ 10월, 참여인원 연20명(다문화가정 여성), 강남알대 병원 및 보건소 등 근무
- 메디컬통역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다문화여성을 언어능력과 사무능력을 갖춘 국제의료통역사로 양성하여 안정적 취업기회 제공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의료 관광객 편의도모



국제의료통역사 교육



파견 병원과의 MOU체결



병원근무 현장





서울

◀ 광화문 광장

- 출근 할 곳이 있다는 건 크나큰 삶의 활력소 김경현 ●
- 행복 일자리, 행복의 씨앗 정도수 ●
- 폐현수막은 사랑을 심고 유연숙 ●
-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 알리미, 나는 국제의료통역사입니다! 박 따찌아나 ●
- 꿈에 날개를 달아 준 포근한 일자리 캔노이파리사 ●
- 도심 속 행복 텃밭 만들기 김상고 ●
- 일의 소중함을 배우다 김기현 ●
- 일하는 기쁨, 넉넉한 마음 손범동 ●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건 크나큰 삶의 활력소



— 테마등 제작사업 —

| 김경현 |

오늘도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접수한다. 발표 날이 되면 이제나 연락 오려나 기린 목이 되어 핸드폰 벨소리에 촉각을 동원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없다. 엄마의 품에서 안 떨어지려는 늦둥이 덕에 일손을 놓은 지 11년, 나이가 오십이 넘으니 취업이 쉽지 않았다. ‘사회조차 나를 거부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메일함을 정리하다 “제1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급여는 얼마 안 되지만 근무시간이 적당했다. 뽑아만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공고에 여러 직종이 있었지만 해 보았던 일은 하나도 없어 고민하다가 ‘허준 테마등’ 만드는 일을 택했다. 직접적으로 등을 만든 경험은 없지만 의상제작 (옷, 한복 등)을 배워 본 경험이 있기에 용기 내어 접수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한 달을 기다린 결과,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뿔 듯이 기뻐다.

드디어 3월 5일 첫 출근길,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한지를 손으로 찢어가며 만들었는데 재단에 소질 있는 분이 계셔서 재단된 한지로 작업을 하니 훨씬 모양이 보기 좋다. 생명력이 없다고 대충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기 좋은 테마등을 만들까 고민하고 마음을 다하다 보니 점점 더



작품에 맵시가 나는 것 같고, 내가 만든 燈이 마을 곳곳에 걸리겠구나 생각하니 바라만 봐도 행복의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비슷한 연령, 비슷한 가정형편이 많았다. 일하면서 아이들 얘기, 반찬 얘기 등 이야깃거리가 넘쳐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이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오늘도 나의 손에서 어떤 표정의 테마燈이 만들어질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허준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시적인 일자리이기에 꾸준히 다닐 수 없어 아쉬움이 크지만 어쨌든 오늘은 행복하다. 이 사업처럼 가사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 일자리, 행복의 씨앗



— 등산로 정비사업 —

| 정도수 |

지금 구로구는 명품올레길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에 한창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 등으로 산행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인 것 같다. 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지원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로구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산을 좋아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주로 관내 주요 등산로 훼손지를 복원하고 등산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등산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매봉산, 와룡산, 천왕산, 능골산, 개웅산 등 등산로에 등산안내판, 방향표시판, 목책계단, 로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각종 유동광고물 제거와, 쓰레기, 오물 등의 수거, 우거진 잡초제거, 뿌리가 노출된 나무에 흙을 덮어주는 일과 자연보호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등산로는 훼손된 상태를 고려하여 훼손이 심한 등산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급경사지나 수목의 훼손이 심한 구간은 안전한 등산을 위한 목책계단 및 등산로프 설치를 함께 추진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등산로 주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정비하고 있다. 등산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주변 산림환경의 개선 또한 이루어지니 구로구 관내 산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참여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이 생겼다. 나 자신이 지역주민으로서, 관내 등산로를 찾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 열심히 환경 친화적인 숲을 가꾸어 안전한 산행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 또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멋진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폐현수막은 사랑을 싣고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 유연숙 |

어느덧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체험수기를 작성하며 지난 3월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학생 자녀를 둔 주부인 제게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엄마로서의 일도 병행해야 했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일이 끝나 집에 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어 기절하다시피 쓰러졌기에 아이들을 보살필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한 시기이니 곁에 있어주는 편이 더 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해서 들리본 주민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재봉 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봉 일은 자신 있는 일 중의 하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여간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참여자로서 선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버려진 현수막으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이후 제 걱정들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혼자 하는 재봉 일보다 다른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았고, 폐기처분 하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한 현수막들을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 제품들이 구의 곳곳에서 쓰이는 것을 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곳에서 살았어도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제법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사업에 참여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정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던 동 주민센터 주민님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정이 많이 들어 막상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4개월이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금 제 삶에 긴장의 끈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몇 살이 되더라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만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당당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들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저처럼 행복한 경험을 하는 우리 동작구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 알리미, 나는 국제의료통역사입니다!



| 박따찌아나 |

안녕하세요! 저는 박따찌아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고려인 3세입니다. 구소련(C.I.S)에서 태어난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따찌아나’라는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고요, 한국에 오기 전, 다니던 교회의 한 선교사님이 ‘경아’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한국에서는 ‘박경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한국말을 하셨지만, 부모님과 저희 남매는 한국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말을 쓰지 않고 자랐습니다. 대신 러시아 말을 모국어로 알고 자랐습니다. 한국 말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났던, 한 선교사님의 손에 이끌려 갔던 교회에서 비로소 한국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간호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 한동안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님의 나라, 발전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우즈베키스탄 사범대학교 ‘한국어과’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교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인연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등록(2005년)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철학을 배우면서 한국인의 철학사상을 알고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언어에 더욱 능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생소한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교 과제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비까지 벌며 공부해야 했기에 매일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이겨냈습니다. 결국,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를 하였습니다. 아직 석사과정 논문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료관광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도 자주 아프셨던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봉사로 선교활동을 하던 교회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절 교회로 의료봉사선교를 오셨던 많은 의료봉사팀과 함께 통역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간호대학에서 배운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 힘들었지만 여러 의사선생님 및 환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통역일을 도와주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의료관련 업무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관광업에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중,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메디컬 통역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참여해 11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강남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국제의료통역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지난 3월부터 서울삼성의료원에서 국제의료통역사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통역을 하면서 통역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문화도 알아야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번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집 생각, 엄마 생각 많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야 환자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회복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젊은 여자환자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처음 진료를 받는 거라, 너무 겁먹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까이에서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진료 후 환자가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 되었다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으로 수많은 외국인 환자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삼성의료원에도 많은 외국인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소도 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는 2명인데, 한 명은 번역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통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서 2013년 6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강남구청’ 과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날개를 달아 준 포근한 일자리



—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

| 캔노이파리사 |



안녕하세요. 캔노이파리사입니다. 태국에서 왔고 다문화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은 1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장난감과 전통복장을 둘러메고 처음 어린이집 방문교육에 나섰던 날이 기억납니다. 어린이들 앞에 서니 심장은 쿵쿵 금방 뛰쳐나올 것 같았고 어찌나 떨리던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건 어떻게 붙여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는데 저는 멍하니 서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러한 날이 며칠 지속됐습니다. 저는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봐 화장실에 가서 혼자 펄펄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다문화강사 체질이 아닌 것



같이, 남에게 피해주기 전에 그만둬야 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 참 복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훤히 꿰뚫어라도 본 듯이 저의 동료들은 한마음으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그들이 하는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할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에 가슴은 뭉클했고 콧마루는 찡했습니다. 출신국은 서로 달라도 끈끈한 그 무엇으로 통하나 봅니다. 이처럼 좋은 직장에서 이처럼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turning point입니다.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뜻 깊은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은 저희 결혼이주여성에게 활력소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든지 배우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나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걱정에서 시작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공부 가 너무 재미납니다. 태국문화를 더 알고 싶고, “한국인들에게는 태국을 어떻게 알려야 한국인들이 아름다운 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하는 물음에 마지못해 대답을 했었는데 이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각국의 장난감을 소개하고 일본문화 메인강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강사이지만 내년에는 꼭 태국문화를 전파하는 메인강사로 활약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땅 태국,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태국, 이런 태국의 딸로서 자긍심을 안고 한국 어린이들에게 태국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도심 속 행복 텃밭 만들기



| 김상고 |

2013년 3월 4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시농업팀에 출근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근무 수칙과 주의사항 및 도시농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새로운 하루를 열었다. 첫 출근이었다.

나는 일자리사업 참여 전부터 도시농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번에 운 좋게 전문기술인력으로 선발되었다. 상자텃밭, 옥상텃밭, 자투리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팀으로 배치 받았다. 우리들이 할 일은 도시농업의 일환인데, 상자텃밭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물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보람된 일이었다.

작년에 사용하던 상자를 뒤집어 상토와 퇴비를 알맞게 배합하여 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그리고 여러 가지 쌈 채소류를 골고루 심었고, 여름에는 배추, 무, 쪽파 등을 심었다. 담당공무원의 작업지시를 받아 전달하고 함께 여러 장소에 작물을 심고 키우며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동안 내가 배웠던 농업기술과 현장에서의 농사는 큰 차이가 있었다.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먼저 상자에 작물을 키우는 방법, 친환경 유기농법 등을 알아야 했다. 무엇보다 농사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도시농사는 주민과 동료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었다. 농사를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시기별 농사법(병해충 방제, 물주는 시기, 겉가지치기)을 설명해야 하고, 또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다. 일이 끝나면 인터넷과 책을 뒤져 농사기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다음 날 할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보냈다.

이 외에도 경로당, 복지관, 동사무소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을 조성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음료수를 나누며 모종을 심을 때의 즐거움을 잊지 못한다. 동사무소 옥상텃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모종 심기 행사를 했을 때는 정말 일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건물 모퉁이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공동주택(빌라 공터) 내의 방치된 땅, 공원 주변의 작은 공터 이런 곳을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꽃을 심으면 한철 볼 수 있는 조경이 되고 농작물을 심으면 마을 생태텃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의 소중함을 배우다



— 쪽방촌 집수리사업 —

| 김기현 |



처음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허리 쪽에 이상이 생겨 잠시 쉬고 있던 차이기에 조금 망설였다. 그 병세가 도지 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마냥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다. 예전의 일 몸 상태가 점점 무디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몸은 아프지만, 당장 무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지만 사무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점차 예전의 일 몸 상태로 되돌아왔다.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땀을 보면서 나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잘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예전의 일 몸 상태를 만드는데 이번 일자리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뼈저럭 거리던 몸이 쉬는 여러 달 동안 더 망가졌다. 조금만 움직여도 말을 듣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변에 없어 낙담하고 있었다.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서 예전의 몸 상태로 회복하는데, 이번 일자리가 윤희유 역할을 해주었다. 이번 일자리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좀 더 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삼아 좀 더 긴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모로 감사드린다.

일하는 기쁨. 넉넉한 마음



— 컴퓨터 활용지원사업 —

| 손범동 |

나는 현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다. 2013년 처음 이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만 해도 나는 시각장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8개월째 이 사업에 참여하며 나는 달라지고 있다. 조금 더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는 느낌이다.

매일 아침 10시, 각지에서 올리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부름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 활용 시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하루는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로 꽉 채워지는데, 잘 잊히지 않는 사연들도 있다.

그 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했던 어르신의 전화가 기억에 남는다. 그 어르신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10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셨다고 했다. 주말 이틀 동안만 집에 있어도 종이 쭉시는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집에 있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주는 밥만을 축내는 식충이



생활을 했다는 어르신은 손녀가 태어나면서 생활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손녀의 재물을 보기 위해 전화 통화를 자주하게 되었고 손녀에게 예쁜 옷, 머리 띠를 사주기 위해 주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 예쁜 손녀의 선물을 사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게 된 것인데, 그날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것을 지원받기 위해 나에게 연결이 된 것이었다. 나에게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과 장바구니 사용, 결제 방법 등을 원격지원 받아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한 뒤 어르신은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열 번도 더 하셨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다는 한 어머니의 사례도 기억에 남는다. 매우 더운 어느 여름 날이었다. 다급한 목소리를 담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타는 냄새가 나요. 집에는 나 혼자 있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나는 놀라서 당황해 하고 있을 어머니를 일단 진정시키고 컴퓨터의 파워 버튼을 눌러보도록 안내하였다. 컴퓨터에서 아무런 반

응이 없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방문수리 일정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출장을 나갔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컴퓨터 방으로 안내했다. 불이 나는 것은 아닌지 비싼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참을 조마조마했을 마음이 느껴졌다.

본체 뚜껑을 열기 위해 조여 있던 나사를 풀고 뚜껑을 열자 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메인보드 부분은 깨끗했다. 도대체 탄내의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파워 전원선 부분이 새카맣게 되어 있고 파워가 타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파워를 교체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인근 컴퓨터 수리점에 방문하여 파워 교체가격을 물었으나 꽤나 높은 금액이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어머니는 높은 금액의 수리비용에 당황하며 울상이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복지관에 방문해 파워 관련 부품을 무료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컴퓨터는 말끔히 복구되었다. 환한 미소를 보이며 건네주시던 매실 음료가 지방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 날의 시원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듯하다.

물론 컴퓨터의 이상이 아니거나 원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화부터 내는 이용자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긴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답답해 해답을 빨리 얻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자 노력한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나 원하는 작업을 완성하면 화를 내던 이용자 역시 무안해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차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 일하는 기쁨에서 넉넉한 마음이 나오나 보다. 나는 나날이 발전하고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부산

◀ 영화의 전당

밝고 산뜻한 산복도로 만들기 이교육 ●

행복을 나누는 엄마나라 동화나라 정수영 ●

닥종이 인형을 만들면서 김혜정 ●

취업플러스 보람 강경희 ●

[세잎클로버] 가 가져다준 봄 허 장 ●

폐현수막의 새로운 탄생 최미경 ●

밝고 산뜻한 산복도로 만들기



— 외벽도색 등 주거정비사업 —

| 이교육 |



산복도로변은 몸이 불편한 노인인구와 생활이 다소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1토지 상 10가구 이상이 공동소유 주택이라 노후화되고 미관상 매우 낡아 점점 도시슬럼화 지역으로 변해가는 곳이었다. 통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은 깨끗하고 산뜻한 마을로 바꾸고자 동주민센터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주거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거정비사업이라 하면 도배, 장판교체가 전부였으나 이곳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정 몇 가구

만을 위해 집수리를 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무엇보다 주택도색이 가장 시급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주택외벽도색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다.

산북도로 외벽도색사업은 3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4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동대신 1동에 배정된 6명의 근로자분이 외벽도색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페인트 등을 전달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도색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작업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도색작업에 선정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도 있었으나,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음을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다음번 사업 진행 시에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드리자 협조적으로 이해해주셨다.

두 달 만에 지역주민의 협력과 근로자분들의 노력 끝에, 외벽도색에 동의한 최초 50여 가구보다 더 많은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외벽도색작업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산북도로 주택은 대부분 짙은 무채색 계열의 색상이 많아 다소 가라앉고 칙칙한 분위기였으나, 이번 도색작업으로 외벽은 연한 살구색, 지붕 부분 돌출부에는 약간 진한 포인트 부분 색상으로 탈바꿈하여 산북도로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욱 생동감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북도로 주민들은 사업완료 이후 깔끔하게 도색 된 주택들을 보며 “오래된 집이 마치 새집이 된 것 같다”, “동네가 아주 환해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10통통장님은 “외벽도색작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산북도로가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산북도로 60여 가구의 외벽도색 외에도 대로변 화단 도색, 소규모 옹벽파손지 수리, 공가철거지 화단정비 작업도 무사히 마무리되어 산북도로 거주 주민들에

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자 입장으로 두 달이라는 짧은 사업기간과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상 제약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동대신1동주민센터에서는 7월부터 한 달간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관내 폐고가철거지 정비사업을 전개한다. 산복도로와 중복도로에 산재한 폐고가 철거지를 깨끗이 정비하고 텃밭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행복을 나누는 엄마나라 동화나라



— 외국인 동화번역 사업 —

| 정수영 |

저는 필리핀이 고향인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결혼 8년차 주부로 8살, 6살, 4살 3명의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국인동화번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제안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남편출근도 챙겨야 하고 초등학교에 가는 큰아이와 어린이집에 가는 작은아이 둘도 챙겨야 하는데 일 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한 일자리인데,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 초반에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삼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루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일에 대한 흥미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일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결혼 후 줄곧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월급을 쪼개어 알뜰하게 살림만 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급 받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행복했습니다.

번역일을 하면서 근무가 없는 날에는 센터 내에서 아이돌봄 자원봉사 및 통역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어 교실에 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아기를 돌보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후배 결혼이민자들이 편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더 보람됩니다.

엄마 나라 동화나라를 시작하면서 저보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선배님들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고 최근에 결혼한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

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언니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동화교정작업을 시작하면서 퇴직공무원 선생님들과 1대 1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한국어를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상회화 정도는 자유자재로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국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점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성장에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닥종이 인형을 만들면서



– 닥종이인형 제작사업 –

| 김혜정 |

2월 어느 날, 좌4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3월부터 출근하라는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해하며 3월 4일 첫 출근을 하였다. 닥종이로 인형을 만들어 장산국 설화를 알리는 일을 한다고 했다. “웬 닥종이 인형 만들기?” 종이 인형은 오래전에 책에서 본 김영희 작가의 약간 심술궂고 개구진 인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는 손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껌병인데…

좌충우돌 정신없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닥종이 인형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조금이라도 더 사실에 가까워지려고 김해 가야박물관, 대연동 시립박물관을 찾아 자료를 모았다. 해운대구에 10여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장산도에 처음으로 올라가 ‘고씨할매’의 자취를 찾아보기도 했다. 비 오는 어느 일요일엔 선생님과 함께 상여바위를 찾아 해매며 장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하루하루 날들이 흘러갔다. 닥종이와 풀이 만나 얼굴이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붙이고, 닥종이는 하루가 다르게 사람의 형상이 되어갔다. 어쩔 그렇게 신기하게도 만드는 사람과 인형의 모습이 닮았는지 서로 쳐다보며 왁자지껄하며 웃기도 했다. 작업이 좀 늦거나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아 선생님과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어두운 작업장을 나설 때는 마치 고3 수험생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드디어 ‘고선옥 할매 이야기’가 완성되고 귀여운 유치원생들에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선을 보였다. “아! 귀엽다” “너무 신기하다” “정말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닥종이와 풀로만 만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려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관계자분들 격려의 말씀에 정말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항상 못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도도 해보고 끝까지 해

넌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하기도 했다. “하면 된다” 라는 교과서적인 단어가 정말 진리라는 것도 새삼 느꼈다.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것은 물론 잊지 못할 추억거리도 만들어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취업 플러스 보람



— 일자리플러스 책나눔 문고사업 —

| 강경희 |

저는 이번 2013년 3월부터 진행된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 중 책나눔문고사업에 참여하게 된 강경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적성검사결과 직업상담사라는 직업과 제 적성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제 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을 통해 직업상담사 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입시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시험을 모두 한 번에 통과하고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워크넷에 맞춤형일자리에 등록하고서 이력서를 이곳저곳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쉬운 게 없더군요. 취업의 문이 그리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실망하다 잠시 구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 초 2월 지인의 권유로 이력서를 내어볼 요량으로 워크넷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하려다가 구직신청서가 만료되어 구직인증 대기상태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용의가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금액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흔쾌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자 동으로 가서 동장님과 문고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담한 문고 안은 결혼 후 첫 직장이라 조금은 두렵기도 했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했던 터라 책장마다 가득가득한 책들을 바라보면 서 마음에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고 업무를 파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문고에서의 생활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책을 대출받는 열람자입장에서 대출 처리를 해주는 사서입장으로 위치변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처리, 이용자 관리 등 대략적으로 업무파악이 끝나고 점차 이곳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문고 업무도 손에 익으면서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문고 업무 파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취업알선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메모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기에 교육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보며 내가 맡은 구의 구인업체검색과 각각의 구인업체에 맞는 구직자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구직자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맘으로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한 참이나 갔는데 받지 않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다행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의 한숨이 힘이 되었는지 그 후에는 떨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이지만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하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물론 이 알선 업무가 바로 구직자의 취업과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직업을 찾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구직의욕을 상실한 구직자에게 다시금 의욕을 불어 넣어주며 격려와 용기까지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에 결혼하지 않으신 40대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직자님과 함께 그분이 하고 싶은 일과 직업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좀처럼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끊지 않던 그분은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알선을 부탁하셨습니다. 단순히 알선만 해 드리다가 상담까지 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진솔하게 고민을 나눠 준 구직자님께도 감사했습니다. 그분과는 지금도 통화를 하며 계속해서 직업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구직자 중에 항상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50~60대 구직자님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한 20대의 젊은 구직자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점을 찍은 50~60대 구직자님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젊은 계층이 그 틈새를 열고 들어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노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 또한 그분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 나중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잎클로버] 가 가져다준 봄



— 청소기 모터 부품 조립작업 등 —

| 허 장 |



산과 들에 꽃이 피어나는 봄이건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인 것처럼 춥기만 했다. 2011년 불의의 사고로 죽다 살아나니 몸 이곳저곳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 나는 왼쪽 팔과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지체장애자 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30대에 이런 일이 생기니 현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내 몸이 비록 이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싶어 여러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없어요” 라는 거절뿐이었다. 그때 장애인복지관과 연결이 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직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청기간이 되면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다가 모집한다는 소식에 바로 신청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장애인공동작업장 [세잎클로버]에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전화였다. ‘드디어 나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았다.

3월 4일 사상구청으로 나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일하는 줄 알고 가보나
나 외에도 사상구 내에서 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는 분들이셨다.
간단한 인원 체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작업방법을 교육받
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마음이 무거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
고 설명을 듣기만 했다. 하나는 청소기 모터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었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 쓰이는 고무로 된 부품을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이
라 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 작업의 단계를 나누어서 한 손을 쓰지 못하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양손을 쓰는 분이 하거나, 내가 한쪽을 잡고 다른 한쪽을 옆 사람이
잡아 주어 같이 조립하고 해체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어 비록 내가 몸이 불
편하더라도 작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편하지만 서로 도우
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한 번 더 느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어서 어른신들의
세상 살아가는 얘기와 농담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번 돈,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비록 4개월간이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하여 나처럼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
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관계자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폐현수막의 새로운 탄생



| 최미경 |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직장, 학교,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이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던 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알게 되었다. ‘폐자원(현수막)업사이클링나누미사업’ 명칭이 생소해서 알아보니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생활 제품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판매도 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좋은 사업이었다.



이름부터 너무 생소한 일이었지만 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 애들 옷 하나 만들지 않았던 내가 과연 현수막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을까? 가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재단이라니, 자신은 없었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정구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야 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작업장에 견학을 가서 실습을 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혔다. 길거리에 걸려 있던 더러운 현수막은 정말 버리면 딱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더러운 현수막은 곧 깨끗하게 세탁이 되었고 재단사인 나와 재봉틀 기술자인 동료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다. 주부들의 필수품인 장바구니로 시작한 우리들의 작품은 각종 가방, 파우치, 필통, 실내용, 선풍기 커버로 다양해졌다. 장바구니와 선풍기 커버는 농협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도 한다고 했다.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생학습박람회에서도 우리들의 제품은 인기가 많았다. 안과 밖을 양면으로 하여 섬세하게 박음질한 제품들을 보고 사람들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며 놀라워하였다. 기존의 장바구니가 많이 보급되어 있긴 하지만 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선 모양이었다.

이제 일자리사업도 한 달 정도 남은 듯하다.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서로에게 생소한 일들을 하면서 보낸 시간들.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까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던 시간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워서 힘이 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흘린 땀방울 속에서 우리는 폐자원이 자원이 되어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금정구에서 새롭게 시작 한 폐자원(현수막)리사이클링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나’ 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폐자원재활용이라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자원이 재활용되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싶다.



대구

◀ 계산성당

- EM 발효액의 신비 천재영 ●
- 만촌동 응벽미술관 프로젝트 강석원 ●
- 희망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엄속림 ●

EM 발효액의 신비



— EM(친환경 쌀뜨물)발효액 생산 보급사업 —

| 천재영 |



대구 남구청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근로자 6명을 채용해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쌀뜨물을 이용하여 EM이라는 친환경발효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EM을 주민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늘 보급하여 필요한 주민은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행사 때 무상으로 배부하고, 주민들이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의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비상이 걸렸었는데, EM을 활용해 악취를 제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청소차량 청소, 전통시장 등의 악취제거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EM은 화학약품이 아닌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아 우리 남구 주민 가정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EM 발효액을 방 청소, 화장실 청소, 화분, 주방세제, 목욕세제, 세탁 세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M을 사용하기 전에는 화장실 냄새, 주방냄새 등이 많이 났는데, EM을 사용하고부터는 확실히 냄새가 안 나고, 설거지와 세탁 시 세제 대신 사용해도 때가 잘 가고 옷이 뽕송뽕송해져 더 좋다 했다. 또 건성피부염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좋으며 목욕 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 가정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는 요즘, 친환경 EM 사용은 하천의 자정작용 회복 등 수질정화 능력을 높여 수질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 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수준도 향상시켰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저탄소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구청의 사례가 일자리창출 및 수질오염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도시로 전파되었으면 한다.

만촌동 옹벽미술관 프로젝트



— 학교 옹벽 벽화작업 —

| 강석원 |



수성구 지역에는 대구 미술관, 수성 아트피아, KBS 방송국, 대구은행 본점 갤러리 등 많은 전시장이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과 학생 대다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 제약이 많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 속에 문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주민 및 주된 수요자인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시각적 만족도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수성구 만촌동 일대의 대청초등학교, 혜화여고, 영남공업고등학교, 소선여중, 수성가압장외벽, 만촌3동방범초소 등에 위인 따라잡기, 숲 속 친구들, 감성의 리듬, 향기나는 거리, 미래의 비전, 등을 주제로 벽화작업을 진행했다.

벽화작업은 일자리창출의 하나로 수성구 미술가협회 소속 미술가와 일반 참여 작가, 일자리창출지역 주민과 함께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수성구청과 학교관계자와 참여작가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웅벽미술관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잡아갔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동네 안에서 더욱이 현장 공사 특성상, 장시간 동안 특정 자리를 차지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현장 작업 작가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며 칭찬과 격려를 보내어 주었다.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벽화는 몸이 불편해서 골목의 산책조차도 전기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독거노인에게 위안이 되어주었고 주차문제에 부정적인 염려를 보내주던 개인택시 기사님도 지지자로 바뀌게 했다.

대청초등학교 웅벽작업인 위인 따라잡기는 닳고 싶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입체적인 인물로 구성하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선여중 벽화는 순수대학생 봉사단체로 구성된 SK 자원봉사 지역팀인 써니 팀이 작가들의 지도로 작업이 이루어져 벽화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순수한 자신의 땀방울들로 벽화의 여백을 채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 웅벽미술관 프로젝트는 연령대와 계층이 내용과 구성에 층층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어 지역민이 함께한 문화체험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주거지역에 대

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있다며 등하곶길의 학생들이 하는 말, 수성구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 하는 지역주민들 칭찬의 말, 등등이 참여 작가와 일자리창출 근로자에게 힘을 주었다. 힘든 작업 과정이었지만 완성된 벽화를 보면서 지역미술인으로서 공공 미술 사업에 참여한 보람을 느꼈다. 이런 문화예술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별화되어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 다문화여성 강사활동 —

| 엄썩림 |

저는 2010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엄썩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고 한국말도 서툴러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겠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보니 저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결혼이민자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너무 어려웠지만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다가 다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조금 늘었고 일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읍사무소에 신청을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일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정말 떨 듯이 기뻐요.

제가 하는 일은 이중언어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강사들이 어린이집으로 문화수업을 하러 나갈 때 자료 만들어주고 의상정리를 도와주는 일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큰일은 아니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다문화체험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 캄보디아 문화도 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일자리사업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일이 끝나지만 저의 일자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다문화강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제가 필요한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저에게 첫 일자리를 준 달성군! 고마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천

◀ 인천대교

기후변화체험관은 나눔 소통의 장 김인열 ●

희망 일자리 강국화 ●

행복을 가져다준 일자리 채옥필 ●

새 지붕, 새 인생 김경성 ●

기후변화체험관은 나눔 소통의 장



—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

| 김인열 |



안녕하세요,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김인열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 지역공동체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네요.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분들께 많은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요, 혼자 읽기 아쉬워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참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임재옥〉

저는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재옥입니다. 여성으로 조금은 일이 힘들었지만 시키는 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히 일했답니다. 일이 힘들어도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담당 주사님과 체험관에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인〉

무더웠던 지난여름, 기후변화체험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참으로 보람된 생활이었고 가정에도 커다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4개월, 아침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담당 주사님과 작업반장, 동료들에게 감사 전합니다.

〈최종이〉

추운 3월에 시작한 일인데 벌써 8개월이 지나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일하는 것도 끝나는군요.

올해 65세인 저는 지역일자리 참여자 26명 중에도 고령자에 들어 언행에 무척 신경 쓰면서 일하였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중도에 포기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면 허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몸이 불편하여 중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담당 주사님의 격려로 8개월간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꽃밭을 가꾸고 옥상에 배추, 파 등을 심어 하나둘씩 땀 흘린 결과가 나타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야생초 심은 자리에 다양한 꽃도 심으세요! 꽃밭에 작은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관의 방문객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순애〉

평소 주부로 가정에서 지내다가 처음 사회로 나가 발 딛은 일자리입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주부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 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으나,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 지역을 위해 청소도 하고, 풀도 베며 나름 기여 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일자리사

업에 지원한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모였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들어 없는 이웃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기〉

일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며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유수지에서 땀퐁이, 개구리, 붕어 등을 볼 수 있었고 체험관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도 체험했습니다. 추운 3월부터 시작하여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주변환경이 점차 정비되는 체험관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담당 주사님과 체험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영선〉

담당 주사님과 일자리 참여자와 함께한 날들이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였으나 일의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여자들끼리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매번 담당 주사님이 적극적 해결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소중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 한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동료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윤임〉

8개월 동안 기후변화체험관에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모든 분이 열심히 일했기에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험관에서 일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지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 경제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영숙〉

처음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힘든지 몰랐습니다.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고 힘이 되어준 동료들에게 고맙습니다.

희망 일자리



— 미싱공동작업장에 참여하면서 —

| 강국화 |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온 강국화입니다.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4년 차 주부입니다. 현재 착한 남편과 4살 된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문화적 차이로 많이 힘들었지만, 조선족이라 다른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겪는 언어소통, 문화차이, 음식 등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여러 기관을 찾던 중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싱공동작업장이라는 하모니사업단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일을 하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라는 센터 선생님들의 권유를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평소에 미싱을 좋아해 배우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배우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매월 월급을 받



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람 등도 덩으로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는 작업장이라서 무엇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이주여성들과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해 든든했습니다. 미싱으로 여러 가지 홈패션 교육을 받고 제품도 만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결혼이민 동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든 제품들이 판매될 때는 더욱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연수구 일자리창출과 직원분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가져다준 일자리



— 다문화여성 중국어 강사활동 —

| 채옥필 |

저는 2009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동구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문화와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구할 수 없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삶의 낙이 없어져서 고민과 우울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올봄에 다문화가족에게도 희망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생각도 않고 그 즉시 달려가서 신청해 3월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분야는 중국어 강사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2회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13명 내외의 어르신들에게 중국어를 강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준 많은 도움과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십 년 동안 놓아버렸던 중국어를 열심히 복습하고 많은 중국어 자료를 찾아보면서 수업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제 또래 이상의 어른 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많은 분 앞에서 손이 떨려 글씨도 잘 쓸 수 없었고, 머리가 하얘지는 바람에 적절한 표현을 찾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곳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잘한다고 저를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 누구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지금은 떳떳하게 교단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중국어 한마디, 한마디를 익히면서 즐거워하시고 제 수업을 통해 짧게나마 간단한 대화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으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더 쉽고 빠르게 익히는 방법도 모색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도 그 누구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자신감을 키우면서 행복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인 줄 알았던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 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행복을 안겨준 인천 동구청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자리사업이 우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정착에 얼마나 많은 주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지붕, 새 인생



—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 김경성 |



저는 용진군에 있는 20여 개 섬 중에서 승봉도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섬이라서 마땅한 직장은 찾아볼 수도 없고 변변하게 농사를 지을 만한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은 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에서 지원하는 노임사업 소득으로는 그때그때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이미 나이도 들어서 지금 해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독거노인이라고 저희 집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붕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어디서 거주할지 걱정되어 쉽게 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생활을 아는 주민들이 며칠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집을 봤을 때 왜 진작 공사를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은 지 오래된 허름한 집이어서 그동안 날씨가 나쁠 때는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집 위치가 승봉도를 일주하는 도로 주변에 있어서 다른 집에 비교해 봤을 때 경관상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완료한 집은 큰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것처럼 튼튼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저희 집 도로를 통해서 승봉도를 일주하는데 다른 집들과 잘 어울려 보기 좋았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집이 새집처럼 멋있어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암에 걸릴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 저 스스로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생활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동네주민들과 면사무소, 용진군청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 무등산 수박

꿈을 이루며 사는 삶 이순미 ●

희망의 끈 박동용 ●

손때 묻은 문화공간의 탄생 김창래 ●

무등산자락에 심은 희망 김현자 ●

꿈을 이루며 사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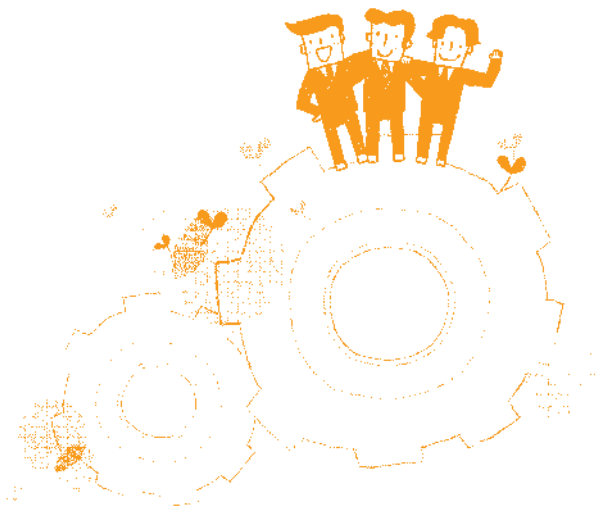


— 국악 관악기 제작 사업 —

| 이순미 |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핵심자원사업장인 춘수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악 관악기 제작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곳으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이곳 춘수공방에서 실현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것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 제작과 연주 등도 배우고 있으며 외국인들 방문을 대비해 홈스테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명의 직원과 함께 일합니다. 같은 동료직원인 삼십 대 초반의 남성은 우리 문화를 좋아하고 이곳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편찮은 관계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데 이곳은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취미가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는 것인데 이곳에서 악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어 앞으로 악기장의 꿈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자리이기 하지만 임금이 적어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며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직업 한두 개는 가져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통기술자의 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다른 일을 찾아서 나가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하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시설과 인력마케팅,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통문화 홍보도 하고 우리 국악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내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좋은 기회이었기에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광주 동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의 끈



— 솟음길 산책로 정비사업 —

| 박동용 |

정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하여 구청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고 접수 기간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일을 못하면 누가 할 수 있냐고 한마디 내뱉고서는 사무실을 나왔지만 지금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기에 탈락이 됐나 하고 단념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구청 기업지원과 직원이었다.

3월 4일 교육이 있다고 하여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으로 갔다. 오전에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다. 교육이 끝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개발과로 향하여 담당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이 일하게 되는 사람들과 바로 현장으로 나가보았다.



내가 할 일은 북구 문흥동에 있는 시민의 숲음길이라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 했다. ‘근무 장소가 야외라 괜찮을까? 동네주변이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창피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 힘으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름이라 그런지 산책로에 잡초가 수북하니 자라나고 있어 우선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쓰레기 줍기, 나무에 물주기, 삽질하기 등도 했는데 간단한 업무지만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작업이라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갔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나중에 쓰러지신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알려주셨다. 오랜만에 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흥분하여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하였나 보다. 그렇게 첫날의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와 동료들은 작년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산책로를 정비하였고 산책로 주변의 미관을 위하여 맥문동과 철쭉을 심었다. 처음에는 육체노동이 쉽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 쓰였지만, 내가 이 나이에 스스로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 내가 산책로를 정비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북구 주민의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사명감도 생겼다.

아직도 내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업에 취직을 할 수 없고, 막노동자리도 들어가지 못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 비록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에게 정부가 그 끈을 같이 잡아주면 그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지금부터 기다려진다. 가능하다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나의 능력을 믿어주고 채용해 준 송광운 청장님 이하 북구청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손때 묻은 문화공간의 탄생



— 문화공간 조성사업 —

| 김창래 |

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동은 광산구에서도 다소 변두리에 있는 곳입니다. 관심지역은 아니지만 산업단지가 있어 그나마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지요. 이런 평동이 산단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예전의 이미지를 벗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베기 작업 등이 참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 일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도 심고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놓으니 이것 참 괜찮더군요. 욕심이 났습니다. 좀만 더 신경 쓰면 더 괜찮겠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이거 4개월만 하고 끝나는 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구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길 하나하나에 아름다워지는 길을 보니 모처럼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주머니들 많이 일하고 계셨는데 저런 일은 참 편하겠다 싶어 신청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것이 좋았고, 나중엔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고 서로들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제 나이 65세, 남들은 일하기 힘든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니 우리 때와는 시대가 달라져 젊은이들이 더는 어르신들을 봉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자리를 주십시오. 소박한 아름다움이 노인세대에게 있습니다. 기계로 만드는 대형 문화공간과는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손때가 묻은 문화공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무등산자락에 심은 희망



— 생태공원 조성사업 —

| 김현자 |

광주광역시 동구는 산 좋고 물 좋은 무등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진정한 슬로우시티를 느끼며 행복을 충전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무등산 자락 아래 다남길과 동적골이라는 작은 산책로 공원이 있는데, 저는 동적골에서 실시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무등산 자락 아래 튼튼꽃동산을 조성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남길을 정비하고, 맨발산책로와 진입로를 청소하고, 산책로변 수목과 철쭉, 장미, 꽃잔디, 금계국 화단 보수와 김매기 등 주위를 정비하고 가꾸는 데 힘들기도 했지만 동적골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과 깨끗하게 정돈된 주위환경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튜립공원을 조성한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 생활하는데도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의 손길로 완성되는 일,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대전

◀ 갑천야경 – 한빛탑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박혜란 ●

우리 아이에게 주는 아빠의 첫 번째 선물 임수진 ●

인생 2막, 유성구 신성동에서 출발 고경식 ●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 —

| 박혜란 |



아! 바람이 시원하다. 자전거에 올라 갑천누리길을 달리다보면 뜨거운 여름햇빛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내 몸에 와 닿는 바람과 기분은 시원하고 상쾌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자전거 타기. 나는 자전거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다. 평소에도 자전거로 이동을 한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도보로 이동을 하다 보니 누리길과 대화도 하고, 물로 피어난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 볼 수 있었다. 누리길에는 많은 생태계가 공존하며 살고 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들, 바람이 살랑 일 때마다 말을 걸어오는

갈대, “나 잡아 봐라.” 하며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갑천누리길에 가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함께 누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신체 단련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정겨운 연인들, 마냥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뛰어노는 아이들, 행복한 가정들이 갑천누리길에는 있다.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3월4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평소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대전문화관광해설사로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해설을 한 지 9년째다. 하지만, 해설사는 1주일에 1번 정도 각 해설지에서 해설을 하니 나머지 시간이 여간 아까운 게 아니었다. 물론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1주일에 2시간 하는 것이었다.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 헤매었다. ‘찾는 자에게 길이 있다.’ 라고 했던가! 드디어 찾아내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 이었다. 참으로 열심히 하였다. 갑천을 걸으며 갑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었고, 자전거를 타며 갑천의 문화와 역사를 돌아보는 스토리텔링 작업도 하였고, 버스를 타고 전설이 살아 있는 마을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갑천누리길’ 에 있는 줄 모르고 멀리서 찾아 헤매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였다.

오늘은 폭폭 찌는 날씨다. 점점 지구 온난화로 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고 한다. 토양도 오염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도 현저하게 줄어, 지구는 자연의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연일 보도 하고 있다.

사실 자전거 보다는 자동차가 편하다. 편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니 항상 순환하게 해줘야 된다. 내 몸을 위한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은 자전거타기와 걷기였다. 걷는 것이나 자전거타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여럿이서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 한사람,

두 사람, 자전거 매니아들이 모여 들었다. 초등학교 때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조기 청소 했던 생각이 났다.

그때도 이렇게 한사람, 두 사람 눈을 부비고 빗자루를 들고 나왔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운동이 저절로 되었었다. 운동이 되니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이 활기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럿이서 모여서 걷고 달리다 보니, 신 새마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 마음을 갖기 위한 새마을 운동은 자연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지역을 여행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 본다. 없으면 걸으면 되니까 크게 지장은 없다. 우리 대전은 참 좋다. 타슈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팀은 1, 3주째 토요일 갑천 누리길 39.9KM을 달린다. 엑스포다리에서 장태산까지 자전거를 타면 몸에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샘솟는지 활화산이 되어 용암이 흘러내린다.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여러 동이 있다. 특히, 행정동인 기성동은 갑천 주변에 10개의 동을 가지고 있다. 서구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의 허파로 불린다. 허파를 뚫고 나오니 가슴이 탁 트인다.

장태산 입구에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양 옆으로 줄을 서서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뿜어내는 산소라니! 아, 가슴을 활짝 열어 마음껏 들여 마신다. 행복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에서는 “갑천누리길생태문화체험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의 각 학교에서 “갑천누리길생태문화 체험봉사학교”를 서구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갑천의 생태와 문화 역사를 교육하며, 자연정화를 한다. 직접 잡초도 제거한다. 서구 자원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시간도 준다. 참여한 구봉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은 짜여진 학교생활에서 잠시 떠나 자연 속에서 맘껏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도 날리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활력소가 된다고 하였다. 역시 자연 속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갑천

누리길 토요장터를 운영하여 기성동 주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건강한 시민이 되는데 일익을 하였다. 생전 처음으로 드림 생태 텃밭도 가꾸었다.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씌우고, 발이 푹푹 빠지는 고랑 속에서 비를 맞아가며 고구마 묘목을 심었다. 그곳 주민들께서 농사짓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녹색 생활문화를 확대시키는데 앞장서시는 주민들이 고마웠다. 그 분들에게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로 보답할 생각을 하니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되었다.

자연은 낮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산은 계속해서 뻗어 내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우리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 공부도 하고, 땀 흘리며 노력을 한다. 자연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저절로 힐링이 되어지는 ‘대전 서구 갑천누리길’ 정말 좋은 곳이다. 언제든지 갑천누리길로 나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에게 주는 아빠의 첫 번째 선물



— 아빠가 만들어주는 배내옷 사업 —

| 임수진 |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에게 엄마가 주고 싶은 것은 참 많습니다. 아이를 위해 정성들여 준비한 배내옷, 턱받이 그리고 작고 귀여운 손·발싸개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은 엄마의 따뜻한 마음일 것이고, 아빠의 포근한 사랑일 것입니다.

예전의 아버지들은 마음의 표현이 서투른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아버지들은 많이 다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들에게 ‘아이를 위한 선물을 손수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첫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재단이 가능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작 당시 참여자들의 봉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위한 마음의 나눔’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선뜻 봉제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흠패션 공방 선생님에서부터 잘 아는 원단가게를 소개해 주시겠다는 커튼가게 점원분까지. 많은 관심들이 모여 첫 번째 배내옷이 탄생했습니다.

예쁜 배내옷이 만들어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은 오히려 참여자 분들이었습니다. 시판되는 바이어스 테이프나 면끈의 질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완벽한 배내옷을 만들겠다고 참여자 분들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지인에게 문의하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들은 옷깃과 끈까지 유기농 원단으로 자체 제작한 배내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스를 달거나 모티프를 추가하는 등 디자인의 변형도 시도하였습니다.

예쁜 포장에 배내옷을 담고 아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서를 동봉한 후 교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홍보는 통장님들께서 앞장서셨습니다.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일등으로 주민센터에 달려오신 김미선 씨(은서 어머니)는 출산 전 태교를 위해 배내옷을 직접 만드시고 계셨는데 아이 아빠와 함께 같이 만들고 싶으시라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서 뜻밖에 선물을 받으신 김국일 씨(민재 아버지) 또한 가양2동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에 놀라시면서 ‘옆 동네에서 준다는 체온계 보다 훨씬 좋고 뜻 깊은 선물’이라며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동구 ‘신바람 행정 실천사례 모음집’ 에도

나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여자 분들도 변화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제시하는 로드맵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배내옷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자를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다른 일자리 사업을 담당했었지만 사업기간이 끝난 후, 그 경력을 재취업을 위한 계기로 삼는 참여자는 거의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최춘심 씨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직접 배내옷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고, 김명숙 씨는 봉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크지는 않지만 사업 전과 후에 분명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새로 습득한 봉제기술을 활용해 뭔가 해보려 하십니다.

물론 이번 사업 참여가 이 분들께 새로운 직장을 준 것도,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당장 일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이 참여자분들께 동기부여를 위한 아주 작은 불씨를 지피드린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별 볼일 없는 기술일지라도 금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빠가 만들어주는 배내옷 사업)을 통해 봉제에 대한 이 작은 관심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봉제 기술자 또는 홈패션 디자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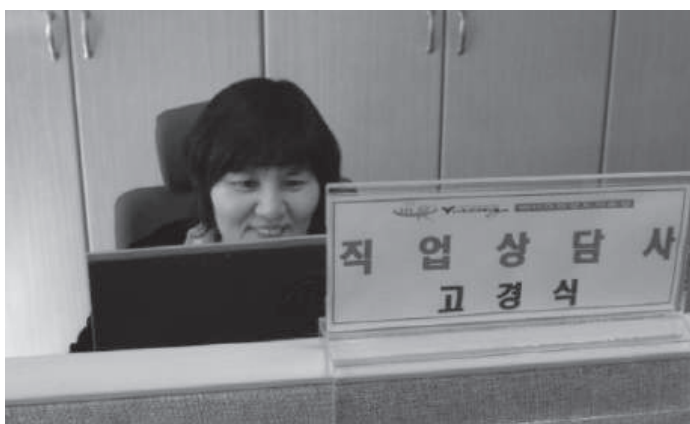


인생 2막, 유성구 신성동에서 출발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사업 —

| 고경식 |



서울과 대전에서 주말부부생활을 하던 어느 날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매월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상담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진로지도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일이야.” 하는 생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였고, 마침내 2013. 6. 2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후 고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중 유성구 일자리발굴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2013. 8. 1. 신성동 주민센터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얼마 만에 다시 출근하는 것인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출근 후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 사용자계정 만들고 시스템 메뉴들을 여기저기 둘러 보는 등으로 한주가 그냥 지나가버렸다. 이렇게만 있다가는 구직, 구인처를 한 건도 처리 하지 못할 것 같아 일자리발굴단 홍보안내문과 신청서를 들고 신성동 인근 구인처를 방문하기로 했다. 전 직장에서 영업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당당하게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라고 밝히고 구인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여름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신성동 일대 구인처 12곳 정도 방문한 것 같다. 그중 교회 어린이집에서 주방보조 1명 채용예정이라고 하여 일단 구인신청서를 받고, 교회 게시판에 구직자 홍보안내문을 부착해주기로 약속 받았다. 또한 농협에 들러서 은행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직 홍보를 위해 민원인 홍보 게시대에 구직신청서 및 일자리발굴단 홍보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오기도 했다.

그 후 며칠 뒤 6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취업을 하고자 주민센터에 방문하셨다. 상담을 하다 보니 연세는 있으시지만 아직도 발일도 하시고, 동네 박스도 줌고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며,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셨다. 일단 구직신청서를 작성 후 그런 다음 구인처를 검색하니 자운대 골프장에 꽃밭 및 화단 가꾸기를 할 사람에 대한 채용-공고가 조회되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혹시나 해서 아드님께도 이런 업무가 있는데 할머니께서 하실 수 있으신지 여쭙보았다. 그랬더니 아드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자운대에서도 면접보시기를 희망하셔서 할머니께 자운대 채용담당자 연락처를 적어드리고 가보시라고 했다.

정신없이 다른 구직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면접 보러 가셨던 할머니가 다시 오셨다. 마침 채용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채용담당자 말씀이 동네에서 아시는 할머니인데 도저히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드릴 수 없어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셨다. 순간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던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었어도 모시고 다녀왔어야 했는데... 아드님께 다시 전화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할머니께서 하실 만한 일자리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후 구청에서 실버청결도우미 채용공고가 났다. 나는 지난번 죄송스런 일도 있고 해서 다시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력서 및 추천서를 간략히 작성해서 구청에 보냈고, 구청에서 채용되어 하루 3시간씩 실버청결도우미로 활동하시는데 마주칠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며 즐겁게 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인생 100세 시대라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 할 수 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어르신들 면접에는 반드시 동행면접으로 모시고 가서 면접을 보고 온다.

어느 수요일 구인처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지난번 구인처 홍보하고 왔던 어린이집 근처인 것 같았다. 원장님은 주방보조를 구하며, 09:30 ~ 14:00까지 근무에 월 50만원의 파트타임 여자분 1명 구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구직자 중에서 주방보조 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분들에게 전화를 25명 정도는 통화한 것 같다. 오후 내내 주방보조 1명 알선업무만 했다. 원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구해주셨으면 하는 다급한 전화를 하셔서 퇴근시간까지 연장하면서 알선업무를 계속했다. 그 결과 두 분 정도가 내일아침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원장님께 퇴근직전에 내일 아침 9시경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퇴근하였다. 다음날 출근 하자마자 어제 답을 주기로 한 두 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한분이 너무 좋다고 당장 일을 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원장님께 면접 언제 보러 가면 되는지 문의전화를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벌써 채용했다고 하셨다.

이렇게도 허망할 수가..... 순간 원장님께는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구직자에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구직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벌써 채용했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 참 좋은 일 자리 놓쳤네!” 하시면서 “다른데 구해줘요.” 라고 하셨다. 구직자에게 알맞은 구인처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직자에게는 정말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지금도 주방보조 3-4시간 일 할 곳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리고 원장님도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신속한 알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고, 최대한 빠르게 취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대부분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동 주민센터에는 “청소하는 일이나 노인일 자리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면 “고용안정정보망(위크넷)을 이용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알선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덧붙여 “그 외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직무를 찾아서 1:1 맞춤형 일자리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구직자에게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기를 3개월, 이제는 친구들과 같이 방문하여 서로 “원하는 일자리 상담 한번 받아봐!” 라고 하신다. 그래서 주민센터 일자리발굴단활동이 홍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구인처에서도 행정보조요원, 수영장 안전요원, 요양보호사 등 조금은 다양한 채용정보를 요구해 오고, 인근 식당, 상가건물, 회사 등 채용담당자들에게도 주민센터 일자리발굴단 활동을 홍보하여 다음 번 채용공고 때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생 2막” 신성동 주민센터에서..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처럼 다른 구직자들에게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취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구직자 상담을 하는 중에 “나도 선생님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하는 분들을 여러 명 접할 수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상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처음 왔을 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이었는데, 어느새 노란 은행잎들이 하나 둘씩 뒹구는 가을이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계약기간 4개월이 끝난다. 하지만 이곳에서 실행했던 직업상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업무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인생 2막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출발!! 아자아자 화이팅!!



울산

◀ 태화강대공원

- 행복한 자전거 치료사 고정석 ●
- 나는야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 손말연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하며 이은주 ●

행복한 자전거 치료사



—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운영 —

| 고정석 |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인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있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사업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 젊은 나이에 제대로 된 별이를 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지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심정으로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나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신청한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했으나 접수 후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고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선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저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운영’이라는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면 자전거를 즐겨 이용해 왔기에 자전거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내가 과연 자전거 수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팀에 전문기술을 가진 이 반장님이 계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 주입하기 같은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 정비 등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리가 숙달되기까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실수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토닥여주며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준 반장님과 동료들이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전거이동수리사업은 공동주택같이 세대수 많은 아파트를 직접 찾아다니며 고장이 나서 못 타고 있는 사람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업무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도 “너무 고맙다, 수고한다”며 빵이나 시원한 음료수를 전해 주시는 주민분들을 볼 때면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면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양 활짝 웃으며 고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연신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데 이런 모습에 하루에 쌓인 피로가 다 녹는 듯합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수리점으로 가져가시기에 힘도 드시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어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다 가져온 자전거를 미안한 듯 말기시며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며 손을 꼬옥 잡아주실 때면 부모님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들기도 하여 눈시울이 촉촉해집니다.

한번은 아버지가 집에서 타시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제가 슬쩍 나서서 자전거를 고쳐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술을 배워 뭔가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나 생각하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일자리가 더없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상반기 사업이 종료됩니다. 자전거이동수리를 하며 이제는 혼자서도 기본적인 고장은 고칠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기술을 쌓았습니다. 예전처럼 집에만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매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공동체사업 근무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임금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 보람차게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희망과 열정, 그리고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종료되는 사업이 아쉽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사람들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그 자전거들이 태화강변의 십리대밭과 태화강대공원을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야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



| 손말연 |



2013년은 제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중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많은 주민에게 탄소포인트제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홍보도우미인 저는 탄소포인트 참여신청서를 손에 들고 대단지 아파트나 주택, 상가, 빌라 여러 곳을 돌며 홍보를 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1년에 7만 원까지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거 신청하기 싫다고 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

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등록하려면 전기고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고지서를 버려 전기고객번호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소포인트제를 알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더 활짝 웃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전기고객번호를 모르겠다는 주민들에게는 제 전화로 직접 한전 상담원을 연결해 고객번호를 찾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탄소포인트제에 등록을 한 뒤, 좋은 제도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실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에 안 다녔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홍보물을 봐도 나오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분주히 다니며 탄소포인트제 홍보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중구 모 아파트에서 만난 한 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중구청에 제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며칠 전 제가 신청서를 돌렸던 아파트였고, 우편물 안에는 작성되지 않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들고 바로 그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잠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참 지나 한 할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신청서를 아파트 우편함에서 꺼내 집에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함과 주소를 적어 중구청으로 부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궁금해하신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신청서를 들고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으시면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며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마치 저희 어머니처럼 냉장고에서 자두 3개를 꺼내 접시에 담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서 감사히 과일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기쁨에 일을 하는구나 싶어 미소가 절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울산의 에너지 절약에 일조를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울산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도우미로 열심히 활약하겠습니다. 모두들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하며



| 이은주 |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에 거주하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우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북구청 1층 민원실내 홍보관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상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설전시장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들을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아마 구청 내에 이런 홍보관이 생긴 건 우리 울산 북구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201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된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보러 전국에서 오신 구청 관계자들 및 많은 주민들이 우리 홍보관을 둘러보시고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홍보관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여기에 전시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홍보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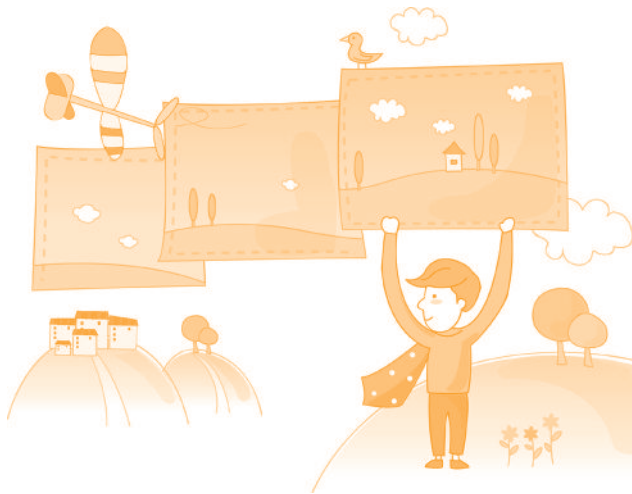


솔직히 일반 주민들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다소 생소하고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해 드리면 아주 착한 기업이라 하시며 많은 관심도 보이시고 제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홍보관에서는 직접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은 설명을 들은 후 본인들도 몇몇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직접 설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럴 때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위해 상담과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된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과연 성공률은 몇 프로냐, 실패가 많은 줄 알고 있다며 다 세금낭비”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질을 높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조금을 악용하는 나쁜 기업들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관이 어려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판로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울산 최초로 구청에서 생긴 우리 홍보관이 좀 더 활성화되어 타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홍보 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홍보관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중앙호수공원

세종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일자리 부사격 ●

가르치며 배우는 영어수업 크리스티나 ●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일자리



- 다문화여성 중국어강사 -

| 부사격 |



아름다운 압록강으로 유명한 중국 요녕성에 있는 작은 국경도시인 ‘단동시’가 제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회계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해서 저는 다른 친구보다 독립성이 강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2001년 말 한류 열풍이 일어나자 저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전문대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어연수를 받으려고 낯선 한국 땅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2년 동안 한국어수업을 마치고, 방송에 대한 관심도 생겨 이화여대 방송영상학과에 입학신청을 했습니다. 7년의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수업이 끝나면 생활비를 벌려고 밤새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많이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현재 남편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전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 중국어학원에서 3개월 중국어 강사를 처음 해보았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원 원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색다른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남편이 직장을 조치원으로 옮기면서 조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육아 스트레스와 타지에서의 외로움으로 너무도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언어발달수업을 위해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센터에 왔을 때 센터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딸을 보살펴 주시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저에게 센터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바로 2012년 2월 13일부터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다문화 가족여성활용사업)에서 중국어 강사를 담당하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별로 없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출근길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저에 대

한 믿음도 생기면서 어느새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13년 3월 5일은 중국어회화 첫 수업이었습니다. 그날 학생들 앞에 처음 선 긴장과 설렘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중국어반 학생들은 학생이라 하기는 너무나도 친근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웃 같은 새 식구들을 만나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움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보며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국어회화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 중국어 실력의 편차였습니다. 한반의 반은 초보자이고 반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월 마지막 수업은 문화수업으로 정하고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중국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스러워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국어회화 수업을 통해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경험만 쌓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생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서로 친해지면서 조치원에서 저를 아는 분이 많이 생겨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동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센터 선생님과 상담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선생님이 되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좋은 기회를 찾아주시고 집에서 방황했던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인정받는 좋은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지도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잘 찾아왔다면 앞으로 센터는 한국의 친정집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놀러 오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센터에서의 일보다 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친언니처럼 저를 챙겨주시고 일을 하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제 딸이 아팠을 때도 항상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영어수업



— 다문화여성 영어강사 —

| 크리스티나 |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크리스티나’ 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간대학에 다닐 때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힘들어도 졸업하려는 일념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비서로 일했고, 그후 은행원, 전화 판매원으로 일하며 가족생계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살게 되면서 한국어와 영어 둘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국문화, 한국생활 등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편이 첫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한글의 자음, 모음부터 배우고, 동화책도 함께 읽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때마침 남편의 친구가 조치원YWCA에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YWCA, 적십자사, 사회복지관 등 가능한 모든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요리, 컴퓨터, 운전, 풍선 아트, 한국가요, 한국역사, 육아, 부부교육 등을 배웠습니다.

2009년이 되면서 센터에 ‘다문화강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생겨 교육을 이수하고 다문화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땐 일본,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다문화강사들이 같이 교육을 배우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센터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계속 하다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좋은 선생님과 엄마가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센터에 초등영어 지도사교육 프로그램이 생겨 이 기회는 꼭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열심히 배워서 ‘초등영어 지도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필리핀문화와 영어수업을 자신 있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유치원 영어수업은 귀여운 유치원생 앞에서 더욱 예쁜 미소로 가르쳤습니다. 큰소리로 영어 동요를 부르고, 영어 인사말을 가르치고 게임도 하면서 영어공부를

하니 가르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전에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업 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공동체일자리사업’ 에 영어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자리 사업에 사업을 신청하여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반과 방과후 초등학생반을 나눠서 영어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정말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학생들한테 한국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생들도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프리토킹, 여행영어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수업을 해보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영어 가르치는데 서툴러도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경기

◀ 수원화성

- 혼자가 아닙니다 도터탄응야
-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준 일자리사업 박배광
- 이웃과 달콤함을 나누어요 최납실
- 공동체일자리로 따뜻한 겨울나기 박선미
- 땀과 정성으로 피어난 야생화 조광필
-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 백현희
- 정을 나누는 우산무료수선사업 김기안
- 다문화가정방문 출산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원종
- 보리밭 사잇길로 안동찬
- 벽화그리기사업은 희망을 싣고 김보미
- 진심 하나면 충분해 마나라이사이나벨레알
- 에코하우스와 나 이향근
- 켈트사업으로 피어난 사랑의 열매 유영혜
- 삶의 활력소가 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백재현
- 비누 향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노재현

혼자가 아닙니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 —

| 도티탄응야 |



신 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에 부천시청가족여성과 소개로 부천외국
인노동자의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통·번역 상담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변 베트남 친구들이 병원 갈 때 도와달라고 대신 말해주거나, 부부
싸움할 때 통역해주는 정도였는데, 직업으로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체류문제, 임금문제, 사업장변경과 관련한 통·번역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최선을 다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저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그 공장에 전화했었는데 제 말 몇 마디를 듣더니 한참 욕을 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다시 전화하라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별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주민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가서 살면 베트남 말 저희만큼 열심히 배울 수 있나요? 한국 분들은 이주민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 이주민들한테만 강요하고 마치 머리가 나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같습니다. “한국말 배워라. 한국문화 배워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문화 차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거 문화차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무시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인가요?

제가 있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 이름을 한 번 듣고는 기억하지 못하듯이 저 또한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웠고, 들은 이야기를 상담 일지에 적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을 만나면서 관련 법이니, 체류기간이니 하는 낯선 내용들을 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정개입을 너무 많이 하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통역을 할 순 없지만 성격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도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상담통역지원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한 사례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일하기 전에도 알고 있던 친구인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4년 정도 됐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족들이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주변에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의논할 사람이 없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은 점점 없어지고 집안일도, 아이들도 안 돌보고 그러니 가족들과는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이 친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이주여성들을 통해 그 친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만 아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상담 통역일을 할 수 있게 된 덕분에 그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하고 무료로 우울증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그 친구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뿌듯하고, 옆에서 도와주신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선생님들과 소장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간단한 인사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방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혼자 있지 마라. 우리랑 같이 있자”고 하시며 저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 베트남 사전을 뒤적이며 어렵

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거실에 항상 사전을 두고 대화하다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너무나 괜찮고 멋있죠?

그렇게 열심히 한국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지금의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도 어렵고 제 능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나와 같은 이민자나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이기에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상황을 예상하여 관련된 단어를 메모하고 베트남 어로 번역하여 외우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준 일자리사업



— 우드버닝 제작사업 —

| 박배광 |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토끼 같은 딸들과 사랑스런 부인을 둔 그런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병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저의 손과 다리를 마비시켰습니다. 갑작스런 병마는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저의 계속된 짜증과 화로 무너져갔고, 집안에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신경만 쓰던 아내는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빠 하며 달려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딸들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득했던 자신감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아가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와 아직도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딸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맘을 먹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시야도 좁아져 운전 같은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같은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동이니 잘할 수 있겠다’, ‘몸에 무리도 안 가니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가족들의 힘을 받아 다시 한 번 일어서보자는 생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과연 잘한 일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는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도 있고 저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드버닝’이라는 작업을 배웠습니다. 생소한 일이기도 하고 나무를 태우는 냄새가 저에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실력이 늘고 마침내 어려운 작품들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재활치료를 할 때는 가족들 이외에는 별로 얘기할 사람이 없었지만 사업장에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또래 혹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재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洞)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드버닝’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생산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과 함께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 직업이 디자인이었던 터라 저는 이 ‘우드버닝’이라는 사업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주말에 쉬고 월요일 출근하는 그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웃음과 가족의 사랑, 행복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업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드버닝’ 기술을 더욱 연마해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힘든 일을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과 달콤함을 나누어요



— 행복빵 쿠키 사업단 —

| 최납실 |

2013년 3월 4일, 동안여성회관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교육은 특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마지막에 시청 일자리담당 자께서 동별로 일할 곳과 일할 사람들을 호명했다. 나는 빵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덜컥 겁부터 났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빵 만들거라니,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려는 순간, 박달1동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오시라고, 함께 일할 사람들과의 첫 대면이었다. 어르신 두 분과 청년 한 명이 같이 있었다. 어색한 자리였지만, 웬지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사를 나눈 후, 행복빵쿠키사업단 사업장으로 갔다. 도착해 보니 기술자분들이 계셨다. 아마도 이분들이 우리 같은 일반참여자에게 제빵방법을 가르쳐주시나 보다 생각했다.



첫날에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음식을 다루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튿날, 본격적으로 빵 만들기를 배웠다. 기술자분들이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셨다.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조금 힘들었다. 다른 분들도 일이 마음 같지 않은 듯했다. 서로 만든 것을 보며 웃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반죽을 오븐에 넣고 빵이 구워져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상이 없으면 예쁘게 포장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갓 구워낸 빵을 먹어보니 시중에서 파는 빵과는 달랐다. 정말 맛있었다. 이걸 내가 만들다니! 스스로 기뻐했다. 또한 그 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좋았다.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5월 중순이 되었다.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이지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열심히 일하고 싶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서운한 마음도 든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맡은 바 일을 척척 잘 해내는 데 이대로 끝난다니 아쉽기도 하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기술자분들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준 담당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공동체일자리로 따뜻한 겨울나기



— 아크릴실 수제품 뜨개질 사업단 —

| 박선미 |

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환경수세미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친환경 아크릴 실을 이용해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코바늘뜨기, 대바늘뜨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색을 써서 예쁘게 수세미를 만들고 이웃에게 선물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던 중, 뜨개질 자격을 인정받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워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시작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월 첫 번째 월요일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코바늘 잡은 법을 가르쳐주고 차근차근 쉬운 무늬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교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친환경 수세미가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참여자들의 뜨개질 실력도 향상되고, 서로 우정도 듬뿍 쌓였습니다. 3개월을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니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준비한 찐 감자, 김밥, 빵, 떡 등을 나눠 먹으며 함께 일하는 재미에 빠져 즐겁게 지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뜨개 실을 좀 더 싸게 사려고 일이 끝난 오후에 혼자서 동대문 시장을 돌았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겨울 이불만큼 덩치가 큰 실 두 보따리를 사 들고 킁킁거리며 주민센터로 왔습니다. 퇴근시간이 다되어 도착하는 바람에 기다리던 회계담당을 난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산 제품이라 사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다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게 서툰 시절이었습니다.

아크릴 수세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가 적게 들고 세균도 번식하지 않아 깨끗합니다. 저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가 좋고, 값이 싸서 일반 판매도 쉽습니다. 수세미가 성공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신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벉워머(짧은 목도리)와 모자를 생각해냈지요.

저희가 요즘 뜨고 있는 넥워머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착용이 가능하고 극세사로 만들어져 일반 제품보다 따뜻하고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물론 뜨는 방법도 간단해서 완성 속도도 빠르지요. 한 사람이 코를 잡아 기초를 뜨면 다른 사람이 받아 또 뜨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해가니 속도도 빠르고 일도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올겨울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뜬 넥워머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참가자들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그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어 참가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기능기술 활용 사업과 판매망의 확대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피어난 야생화



| 조광필 |



지난 3월 3일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배정되었다. 사실 사업 신청 전 사업추진부서로부터 근로자배정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했다. 전입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전임자의 공문을 찾아서 내용을 숙지하였다. 배정된 참여자는 중년의 여성 두 분으로, 사전에 전화연락을 드렸다. 사업장소, 조건, 중식문제 등을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두 분 다 동의하였고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 당일, 조금 일찍 출근하신 두 분에게 사업설명과 근무조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였다. 첫날은 교육관의 환경정리를 겸한 일 등을 돕게 하였다. 사실 이 사업은 계절적인 영향이 커, 당시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 그런데 교육관 관련 직원들로부터 두 분 다 너무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공근로참여자들 중 몸으로 하는 일이 익숙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을 간혹 보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참여자 본인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들도 힘이 든다. 이런 면에서 지원한 두 분 모두 일을 잘한다니 행운이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다음날부터 모종화분 정리 등 본격적인 사업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두 분 외에 각종 농업체험시설 관리일을 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장년의 남자 두 분과 공공근로 여자 한 분이다. 현장의 특성상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배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인지, 서로 금세 친근해지는 거 같았다.

사업장 시설로는 크게 어린이식물원과 도시농업체험관, 모종하우스, 야생화화단, 작물시범포가 있다. 그중 어린이식물원과 청사 내 부대시설은 관내에서 어린이견학 장소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도심 속에서 전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오면 각종 야생화도 볼 수 있고, 제철에 오면 자두나 애플도 맛볼 수 있다. 특히 동물사육장은 가금류와 토끼 등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입소문의 영향인지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많아지자 일도 많아졌다. 부대시설이 워낙 많고 넓다 보니, 손 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을 지원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참여자들의 수고로 야생화화단과 시범포 등 볼거리 시설이 정비되어 갔다. 당사자들도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짧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작업기간이 늦춰졌고 정비하는 시간이 촉박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작업을 하여야만 했다.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다. 5월 이른 무더위에 쪼그려 앉아 제초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조차 하였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과 사업장 직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우리 사업장은 인원이 적은 대신 가족적인 분위기다. 직원 모두와 함께하는 회식에도 참여하여 가급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썼다. 짧은 인연이지만 생일이라도 챙겨주려 하였고, 몸이 힘든 만큼 마음은 편하게 일하라고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덧 상반기 사업이 끝나간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도 곳곳에 그분들의 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견학 온 아이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사업장을 구경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그분들은 물론 저에게도 큰 기쁨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



— 직업상담사 —

| 백현희 |



제 인생의 첫 출근이었던 2013년 3월 4일. 무섭고 두려웠던 그날, 1분이 1시간 같았던 그때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뻑니다. 첫 출근 때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면 저를 안심시키던 일자리센터 팀장님도 생각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구직상담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른 직원들과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나눠쓰면서 일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더 긴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만의 사무기기가 없다 보니 자꾸 곁돌게 되고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저만의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구직 민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심한 성격인지라 원래 먼저 말을 거는 일에 서툰 저로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외면하고 가버릴까 봐 커피를 타서 들고 무작정 다가섰습니다. 저로선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었나 봅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민원인들과 나누던 한 마디가 두 마디, 세 마디가 되어 지금은 아예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친해지자 그분이 굴비 옆듯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시는 통에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채 찾아오시는 40~50대 주부들이 계십니다. 대개가 저처럼 집에만 있다가 늦게 퇴근하는 남편과, 다 커버린 자식의 뒷모습만 쳐다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거나 사정상 일을 해야만 하는 할머니·할아버지 분들이십니다.

앞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부들의 경우, 알선하고 채용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소개도 소개지만 구직자들에게 준비를 먼저 시켜야 했습니다. 결혼 전 근무 이력이 전부인 주부들에게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스펙’을 만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수업을 듣게 한다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에겐 ‘취업성공패키지’를 소개해 보냈습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주부들에겐 제가 공부했던 책과 자료들을 빌려주며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는 주부에겐 방통대나 사이버대학의 편·입학을 추천했습니다. 당장은 채용실적을 올리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2~3개월, 길게 1~2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분들도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고령자 분들에게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들은 건강을 최고의 걸림돌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저로서는 가장 어렵고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나이가 많으면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께 열심히 알아보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일흔을 넘긴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소일거리가 아닌 정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인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4월 중순경 동탄에 사시는 만 76세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면서 5년 반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셨다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며 눈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다고 청소든, 경비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할아버지 앞에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구인처를 검색해보았지만, 나이 때문에 이력서조차 받아주질 않았 습니다. 번번이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 맘이 편하지 않던 차에 마침 건물 청소원을 구하는 업체가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시며 무엇보다 성실하시다고 했더니, 성의를 보아 면접은 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도 동행면접을 나갔 습니다. 여전히 나이 때문에 결정을 못 하시는 사장님께 한 달만 지켜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주민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사장님으로부터 할아버지를 채용하겠다는 전 화가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인을 유도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가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3월 중순경에는 귀화한 중국 여성분이 등분을 떼러 오셨다가 명패를 보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거주지는 오산이고 동탄에서 중국어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무역사무원(중국어통역) 일을 해보고 싶다면서 구직표를 쓰고 가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주지와 근무지가 너무 멀어 알선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지났을까요, 마침 거주지에서 10킬로미터

쯤 떨어진 회사에서 무역사무원(중국어통역)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인처에 전화해보았더니 경력 3년 이상 된 사람만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국 분의 구직표를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밀쳐야 본전 아니겠냐는 심정으로 구인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역사무 경력은 없어도 일반사무 경력은 3년이며, 일본어도 조금 하고 무엇보다 남편분이 무역회사 대리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직자와 저는 기뻐했지만 문제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아직 한국어에 서툴러 제대로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급한 대로 작성을 하라고 하고는 여기저기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접시간은 다가오고 손보아야 할 부분은 많은 상황에서 간신히 면접시간에 늦지 않게 자기소개서를 들려 보내고 나니 얼마나 지치던지요. 사실, 구직자분은 채용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직자분은 다음 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이 맛에 직업상담사 하나 싶을 정도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좀 특별한 경우라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마흔한 살의 여자 분을 지게차 운전사로 알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모르는 신입이어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 여자 분은 버스운전은 그만둔 상태였고,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게차 운전면허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낸 곳이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여자는 안 뽑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성별무관이라고 구인공고에 올리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더니 면접기회는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채용이 될 것이라고는 저는 물론 구직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로 3주째 지게차 운전사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회사 분위기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

도 많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분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같이 일하고 계시는 지계차 동료 분들을 한 분씩 따라다니며 박카스를 건네 드렸지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그분은 제게 끝까지 멋지게 일해보겠다는 각오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구직자 분들이 저를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가끔은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이유이겠지요. 그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님, 남편 덕에 지금껏 힘든 일 한 번 해보지 않으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공부하지 않으면 ‘공돌이’ 되고, ‘청소부’가 된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 그런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는 지금이 무척 아이러니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하찮은 직업도, 비루한 직업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편견이지요. 저는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하는 기쁨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제 과거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비록, 변변한 상담 테이블 하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전 요즘 행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화성 일자리센터에 전화를 걸어 팀장님 이하 다른 직업상담사분들을 괴롭혔습니다. 가진 거라곤 ‘무모함’ 뿐이었지만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집 안에만 머무르며 시간을 허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남편 탓만 하고 살았던지라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직자,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꿈은 결국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저는 직업상담사로 ‘동탄2동주민센터’에 와서야 알게 되었네요. 저에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을 나누는 우산무료수선사업



| 김기안 |

2012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 사랑의우산무료수선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라 하면 공원청소를 하거나,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하는 등 단순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수리처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배, 장판교체와 같은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지요.

우산수선사업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情)을 나누는 점에서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 매력적입니다. 우산수선사업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산수선사업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우산을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각기 사연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선물로 준 양산을 수리하러 오신 아주머니, 손잡이에 손자 이름이 새겨진 우산을 갖고 오신 할아버지,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동우산을 갖고 오신 아버지 등등. 우산을 수선하는 동안 그분들의 사연도 듣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사용문화를 알릴 수 있습니다. 우산은 가격이 저렴해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고장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쳐주는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망가진 우산은 방치되거나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우산을 고쳐 써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재활용·재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우산이 누군가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한 우산, 기증받은 우산들은 우산수선센터에서 세탁하고 수선합니다. 말끔히 고쳐진 우산들은 시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양심우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양심우산’은 시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반납은 양심적으로 하게 되지요. 지금은 기증받은 우산보다는 수거한 우산이 훨씬 더 많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증 문화에 동참하여 정(情)을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져온 우산을 수선하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너무 먼 이웃들을 찾아가 우산을 고쳐주지요. 찾아가는 우산수선센터는 실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우산수선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산을 깨끗하게 고쳐 드릴 때의 보람과, 고쳐진 우산을 받아보는 분들의 표정을 바라볼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산수선 기술자에게 우산을 고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우산수선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상의하기도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챙겨줍니다. 우산 수선은 겉보기엔 단순해도 막상 작업은 꽤 복잡합니다. 우선은 우산 대, 우산 살, 런너, 고정스위치, 손잡이, 우산 천, 바느질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저희 사업단 안에서도 모두 다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도 따로 있죠. 서로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고동락해온 사업단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정을 나누며 계속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방문 출산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 서원종 |



귀한 아들 낳기도 힘들었는데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되지!’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 가슴 속에 아로새긴 말이다. 아이를 낳은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주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이에게 부모란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라고 살 수 있다. 배고프면 젖 주고, 심심하면 놀아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그 일을 기꺼이 해줄 사람이 부모 외에 또 누가 있을까? 나 역시 말썽꾸러기 아들 둘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범부로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내가 출산에 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3년 시흥시 가족여성과로 발령받아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서이다. 이때 ‘다문화가족출산도우미’ 사업을 알게 되었다. 내용인즉슨,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부모가 출산한 아이를 가족 같이 돌봐주는 것이다.

이국땅에 정착하고자 애쓰는 그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의 출산을 돕는다는 것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육아 피로를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육아도우미로 인연을 맺게 되어 지금껏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다.

지금 육아도우미 참여자는 대부분 결혼이민자로 그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다. 서로를 잘 알고 의지할 수 있기에 육아 도움 외에도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들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 제도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여러모로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 담당자로서 민망하지만 기쁘기도 했다.

작년 상반기는 3~6월, 하반기는 8~11월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 공백기에는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연중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재료비를 활용하여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용품을 선물하도록 하였다. 이를 다문화가정에 시(市)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업참여자 8명 중 5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토록 하여 결혼이민자 선후배로, 이웃사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출산육아도우미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낀다.

보리밭 사잇길로



— 경관작물 관광단지 조성사업 —

| 안동 찬 |



경관작물관광단지조성사업은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지역문화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이 사업은 도심지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한지에 청보리, 메밀 등 단일 작물을 심어서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체험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관작물원은 개장 후 전반기에는 청보리를 심어 ‘보리밭 사잇길’이라는 테마로 운영되었는데, 토속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곧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후반기에는 메밀꽃밭을 조성하였다. 가을철 하얀 꽃들이 특색있는 볼거리를 연출하는 ‘메밀 꽃 필 무렵’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이는 이효석 동명 소설 명칭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봉평의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옮겨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듯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작물원을 유지하려면 파종, 제초, 비배, 관수,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인력집약적인 작업으로 지역공동체 참여인원을 동원하였기에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했다. 녹지작업에 생소한 인원에게는 녹지대 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게 함으로서 안전한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녹지작업 안전교육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날씨였다. 자칫 더위에 지쳐 작업능률이 떨어지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여름철 낮 기온을 수시로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작업시간을 배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 인원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숙련도가 높고 성실한 참여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 지방경쟁력지원단에서 발표한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선방안에 임금차별화에 명시되어 앞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도심속경관작물원 조성이 앞으로도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상생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벽화그리기사업은 희망을 싣고



| 김보미 |



지역일자리사업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 휴학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쉬던 중에 어머니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권유했던 것이다. 시에서 기간을 정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기에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러 사업목록 중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벽화사업을 신청하였다.

참여자로 선정된 후 첫 만남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 중 또래가 없어 사실 조금 당황스럽고 어색했다. 나이 차이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다는 말에 긴장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의욕이 솟았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한다면 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으로 벽화를 그리기 전에 이론교육을 받았다. 공공미술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를 영상으로 익혔으며 미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직접 그려도 보고, 성포동을 직접 걷고 둘러보며 적합한 장소와 소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다들 자신 없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잘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이 무언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림 그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게 되었다.

현장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는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의 성격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단순히 잠깐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 일을 예술작업으로 여기게 되었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 작업 전 회의 때 어떤 벽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림이나 색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 초기에는 무조건 그리기만 하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작업을 하는 내내 생각을 해야 했다. 다소 힘이 들었지만 다양한 재료의 사용법과 판화기법까지 공부하면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모두들 선수가 되었다.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스스로 챙기고 점검하며,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다음날의 작업을 위해서 도구를 정돈하고 필요한 물품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리를 걷다가도 벽화를 그릴 만한 곳이 보이면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다른 벽화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었다.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림을 그리던 일, 허름했던 담장이 ‘스텐 실판화기법’으로 새겨진 꽃과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벽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들이 떠오른다. 음산하고 낙서투성이었던 부곡동 공연장 뒤편은 신나는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성호공원의 생뚱맞은 폐자재창고의 펜스 벽면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와 귀여운 동물들이 뛰어노는 친환경적인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또 성포예술광장 계단 벽면에 성포동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테라코타 타일을 부착시키고, 산책 나온 아이들과 여러 풍경을 잔잔하게 모노톤의 실루엣으로 처리하여 활력을 불어넣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벽화사업은 보람있는 일이다. 작업한 벽 앞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할 때의 기분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벽화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인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한참 어린 막내로서, 처음에는 다른 분들을 대하는 게 어려웠었다. 도시락을 싸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하고, 다른 분들이 싸온 반찬을 먹는 것도 뭔가 불편하고, ‘보미 씨’로 불리는 것도 이상했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어려웠었다. 일이 서툴러 남들에게 방해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말처럼 잘 대해주었고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팀원들끼리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자기 일을 잘 알기에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큰쌤(김용호 선생님)의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기획, 작은쌤(박채원 선생님)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배려, 영희 이모가 해주시던 맛있는 음식과 섬세함, 은정 이모의 밝고 쾌활한 웃음, 순분 이모의 따뜻한 말, 엄 반장님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이제 또 하나의 지역공동체사업팀이 발족한다. 우드버닝팀과 우리팀의 인력을 주축으로 자립을 위한 실질적 사업단(가칭 아트브레인)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팀의 일원으로서 작지만 나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우리 모두의 실질적 사회적기업 ‘아트브레인’ 파이팅!



진심 하나면 충분해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사업 —

| 마나라이사이 아나벨레알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아나벨레알입니다. 1996년에 한국에 와서 1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신기한 것투성이였습니다. 특히,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에서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과 달리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비 오는 날과 무더운 날이 전부인 필리핀에 비해 눈이 펄펄 내리는 한국의 겨울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겐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두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두 자녀를 키우며 입에도 못 대던 매운 요리도 척척 합니다. 그렇게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김치와 감자탕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1년 전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안산시다 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돌보미로 지원했고 작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영유아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 잠시도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떨어져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제 품에서 안정을 되찾고 웃음 띤 얼굴로 저를 볼 때면 힘든 것은 모두 잊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이 같은 처지의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뿌듯합니다. 서로 마음을 의지하며 지내는 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에코하우스와 나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 이향근 |

힘차게 핸드폰이 울린다. “이향근 씨죠? 7월부터 선부2동 에코하우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다. “여보, 나 취직됐어!”

나와 남편, 아이들. 우리 식구를 태운 작은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센 풍랑을 맞아 급기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나와 남편의 나이는 어느새 60대 중후반에 이르게 되었다. 눈앞이 막막했다.

요즘 실버세대의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도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자격증, 경력, 풍부한 경험도 나이 앞에 서는 무용지물이다. 어느 곳에서도 나이가 많으시니 편히 쉬시란다.

그동안의 구직활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절망적이었다. 더 이상의 삶은 민폐라는 생각에 조금씩 주변을 정리해 나갔다. 가재도구를, 옷가지들을, 신발들을... 버릴 것은 버렸고 남에게 줄 만한 것은 주고...

결국 우리는 시청 문을 두드려 일자리 상담을 하게 되었다. 나는 가능하다면 재봉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에코하우스의 전화는



긴 가뭄 끝에 달디단 단비였다. 그렇게 초여름의 어느 날 나는 에코하우스로 출근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걷는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70, 8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을 들으며 걷는다. 나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일은 나의 재봉솜씨를 한 단계 상승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 노년의 삶은 지금보다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두툼한 돋보기를 코에 얹고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소품을 만들어 선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한편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에코하우스 팀원은 모두 11명. 40대 후반부터 70대 초까지, 살아온 환경, 과정, 성격, 나이, 모든 것이 달랐다. 때로는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일에서만큼은 팀원 모두 열심이었다. 좋은 일도 많이 했다. 가방, 정리주머니, 선풍기 커버, 방석 등을 만들어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보내기도 했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일한 대가로 새 안경도 마련했고 자꾸 고장 나서 수리비만 꿀꺽하던 컴퓨터도 새로 장만했고, 살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절망뿐이었던 내 삶을 재충전하고 용기와 의욕을 갖게 해준 에코하우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퀵트사업으로 피어난 사랑의 열매



| 유영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제작된 퀵트생활용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우리처럼 생활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소중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사업단에서는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퀵트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작품마다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이 담기다 보니 일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제품은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솜씨가 없다 보니 볼품이 없었지만, 꾸준히 만들면서 주변에서도 인정도 받았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지갑을 창작하여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만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주방 장갑은 크고 예뻐서, 만드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의성과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제법



멋진 주방 장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리갑이나 볼펜인형, 마우스손목보호대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켈트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제가 만든 켈트소품을 선물합니다. 받는 분의 반응도 좋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켈트생활용품에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바느질 한뼘 한뼘에도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도 얻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활력소가 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생태이야기관 조성사업 —

| 백재현 |

집에서 적절하게 보내던 내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모집 현수막을 보고는 접수나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자리사업이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주제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을 마을의 문화 명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은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한몫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상반기는 주로 꽃길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인근의 공한지를 파고 돌을 골라내는 등 힘든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할아버지입니다. 호미질, 낫질이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며 일했습니다. 또 작업장이 비탈면이어서 위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이 최고라는 담당자의 충고에 따라 모두 조심하며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땅을 파고 꽃을 심으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성한 꽃길을 풍성하게 가꾸고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스러웠지만 그럴 때마다 담당자는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공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재료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염려와는 달리 쉼터를 짓는 작업이 재미있고 쉬웠습니다. 담당자가 천천히 하자며 기반작업을 같이 도울 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목재를 나르기도 하고 톱질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힘이 들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하는 목공작업이어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10일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노래방도 가고 음주 가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작업으로 쉼터에 페인트도 칠하고 꽃길정리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저처럼 삶의 활력소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누 향으로 피어난 행복 일자리



- 천연비누 제작사업 -

| 노재현 |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10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장마, 무더위가 가고 금세 추위가 다가왔다. 무더위와 함께 시작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반기사업도 이제 막을 내리려 한다.

우리의 첫날, 첫 만남이 떠오른다. 비산3동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나를 포함한 5명의 참여자들이 모였다. 잠시 후 약간의 서먹함을 머금은 채 짧게 자기소개를 했다. 각자 이름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복 터졌네. 쓰리 복이야” 하는 것이었다. 모인 분 중에 이름에 복자를 가진 사람이 세 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복이 하나도 아니라 세 개씩이나 굴러 왔으니 대박이 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우린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에 앞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청소를 했다. 바닥은 물론 벽면, 책상, 의자, 출입문 등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하니 우리만의 아지트가 생긴 것처럼 애정이 갔다. 이렇게 우리의 첫날 신고식이 치러졌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재료들을 참여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렸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대뜸 “난 이름을 알려줘도 몰라. 자꾸 까먹어” 하시는 것이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기억하셔도 되고 4개월간 무한 반복실습 하실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연세가 일흔이 넘으셔서 글리세린이니 에센셜 오일이니 하는 재료 이름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시연했다.

실습을 시작되자 뜻밖의 일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 비누베이스를 찢고 다음엔 오일을 넣어보았다. 천연색소도 넣어보고 시간과 온도를 측정하는 법 등을 익혔다. 자꾸 까먹는다는 걱정하던 분도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분은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천연비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해낸 그분이 “나 이제 자격증 줘”, 하실 때는 모두가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참여자분들이 열심이라 분위기도 좋았다. 모양, 색상과 향이 잘 어우러진 비누를 완성할 땐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금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 또한 잊지 않았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한방 곡물 비누 만들기를 시도했다. 기능성이 추가된 비누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담당 주사님께 한방 곡물 재료를 부탁했다. 천연 비누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그 자체로도 유익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나만의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나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알게 된 비누의 효능이나 주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 알려 드렸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듬뿍 든 비누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제품의 주문이 있는 날이면 콧노래를 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하여 상자에 담았다. 마치 작품 선보이듯 마음이 설레었고 뿌듯했다. 포장된 비누들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이기에 모두들 흐뭇해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기쁜 일은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직접 만든 비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딸의 직장 동료가 한번 써보고는 좋다며 주문을 했다고 한다.

모두가 내 일처럼 기뻐했다. 전문기술을 익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설 자리를 만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기술도 익히고 좋은 인연도 맺을 수 있었다. 서로 챙기고 아끼고 보듬었던 4개월이란 소중한 시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황복만 왕언니, 우직하고 듬직한 우복순 언니, 손재주 달인 & 해결사 이주복 언니, 분위기 메이커 이흥화 언니! 모두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강원

◀ 꽃과 공룡능선

- 희망 가득한 산천어燈 야마네요시꼬 ●
- 내게 젊음과 웃음을 준 행복 일자리 최계화 ●
- 설악의 관광명소를 지키는 숨은 주역 김성규 ●
- 참여자분들 덕분입니다 전인석 ●

희망 가득한 산천어 燈



— 산천어등 제작사업 —

| 야마네요시꼬 |



바야흐로 산과 들에 단풍이 불붙는 계절이다. 지난 3월,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시작했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벌써 8개월이 되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낯선 한국에서 외국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지인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장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근무시간도 적절해 어린 자식을 둔 나에게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다.

처음엔 내가 사는 화천이라는 곳이 매년 산천어축제 때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산천어축제가 세계의 겨울축제라는 것에 더 놀랐다. 그리고 그런 축제 때 화천의 길거리를 수놓게 될 산천어등을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2014년 산천어축제를 생각할 때마다 설렌다.

낯설기만 했던 사업장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산천어등 만드는 작업과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부족한 점과 개선점을 고쳐나갈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산천어등을 만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작기술을 더 익혀 더 예쁜 산천어등을 제작해 보고 싶다는 의욕도 생겼다.

외국인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산천어등만들기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내게 젊음과 웃음을 준 행복 일자리



— 자연탐방로 조성사업 —

| 최계화 |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최전방 민간통제구역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농지보다는 산이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촌마을이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15년, 혼자 자식 2명을 가르치려고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자식들도 이제 분가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하루하루 의식주를 걱정해야만 했다. 몸이 그리 좋지 않아 노인정에 가서 놀다 오는 것이 나의 하루 생활의 전부였다. 내가 보아도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나를 맡기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장님께서 찾아와 마을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는데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니, 참여해보자고 했다.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자연탐방로조성사업’으로 탐방로 조성지 주변에 꽃 심고,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관리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을사업으로 마을 노인회원 일거리 제공 차원에서 노인회원 분 중에서 가사가 어려운 노인에게 참여 우선권을 드린다고 했다.



신청한 결과 나도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작업참여자 중 내가 나이가 가장 적어 작업반장을 맡게 되었다. 태어나 ‘장’ 소리를 처음 들어 보았다.

이장님으로부터 하루 작업량을 전달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였다. 참여주민은 나를 제외하고 7명,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이 6명으로 6명 모두 태어나 월별 노임을 받은 것이 처음인 분들이었다. 첫 임금을 받던 날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처음으로 큰돈을 임금으로 받아 감격스럽다며, 울겨울에는 마음껏 연탄을 사용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하셨다

마을이장 및 젊은 마을리더들이 마을발전을 위해 무척 노력하여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

내일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에 내 마음은 청춘의 꿈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6개월간 나는 늘 꽃과 함께 생활했다.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맨드라미, 벌개미취,

샬비어, 백일홍, 메리골드 등,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나를 아침마다 반겨주었다. 뜨거운 한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심은 꽃이 말라 비틀어질 때 물조리로 물을 부으며 하나라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했던 시간도 있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속추진사업이 아니라 2013년도에 종료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업을 지속하였으면 한다고 했더니, 이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안을 만들어 행정청에 신청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업이 꼭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다.

이장님께서는 만약에 사업확정이 되지 않을 땐 마을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파프리카재배단지(500평)와 내년도 2,000평 운영하는 작업보조인부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한다. 올 사업은 마지막 단계지만 내년에도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 힘쓰시는 이장 및 마을리더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짧은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기에 힘에 부친 적도 있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생각해보면,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마을환경을 위해 일하는 동안 웃고 이야기하면서 노년기의 우울증도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내게 젊음과 웃음을 준 행복 일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설악의 관광명소를 지키는 숨은 주역



— 도로경관 조성사업 —

| 김성규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는 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명소이다. 때문에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봄비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단풍철이 되면 교통체증과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곤 한다.

이 지역의 대표 약수터인 오색약수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인 주전골의 입구가 되고 설악산 등반의 주요 입구가 된다. 약수·온천, 아름다운 계곡 등이 어우러져 남설악관광의 주요 지점이 된다. 교통도 한계령을 넘어 양양으로 가는 도로연변에 있어 연중 관광객이 찾아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곳은 주말만 지나면 행락객들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 곳이기도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버거운 곳이기도 하다.

어느 주말을 넘긴 한가한 평일 오후에 늘 주기적으로 하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을 나가게 되었다. 서면사무소에서 일자리참여자와 담당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이 지역 도로경관조성사업장에 함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다. 그때, 늘상 하는 일 말고 좀 더 새롭고 발전적인 사업장을 발굴할 수는



없을까, 늘 하는 도로경관사업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0월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 그 이전에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오색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중간 중간 파헤쳐진 텃밭과 온갖 쓰레기들로 뒤섞인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가꾼다면 사업참여자나 업무 담당자 모두에게 보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왕에 도로경관조성사업을 할 거라면 더불어 하는 사업이 되고자 이곳을 가꾸게 되었다.

먼저 누구도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식음료대를 깨끗이 청소하고, 당번을 정해 주변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단 공동체 참여자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인 늘푸른환경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그분들이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 쓰레기로 넘쳐나던 공간이 관광객이 쾌적하게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작은 연못은 이끼가 끼고 묵은 때가 많아서 없는 것보다 못했다. 그래서 참여자들과 함께 장화 몇 개와 수세미 등을 들고 청소했다. 묵은 때는 잘 지워지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때는 우리의 손이 몇 번 닿자 깨끗이 지워졌다. 비로소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라 느껴졌다. 참여자들도 물에 발을 담그며 시원하게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오히려 힘을 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여자들의 즐거움, 이것이 지역공동체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제 담당자와 참여자 모두 지역 관광의 파수꾼으로 숨어 있는 주역이 되었다. 하루하루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을 찾게 되었다. 사업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참여자분들 덕분입니다



— 재활용 사업 —

| 전인석 |



어느덧 동해시청환경정책과로 발령받아 재활용 관련 업무를 맡은 지 8개월이 되어 간다. 처음 이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땐 업무에 대한 생소함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평소 우리가 분리, 배출하여 내놓은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또한 재활용 자체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집, 판매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개인이 직접 고물상과 거래할 수도 있고 시를 통해 시와 재활용품매각계약이 체결된 업체와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책무가 있는데, 시에서 재활용품 수집, 처리를 직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활용품을 신속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입장에서도 재활용품의 배출량의 추이 및 재활용품 수집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도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체계를 통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으니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겠다.

우리 시는 재활용차량 5대, 환경미화원 13명이 관내를 돌며 공동주택, 기관, 단체 및 단독주택 등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 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동해시생활환경센터 내 재활용선별장으로 운반되는데 일일 평균 10톤가량 된다. 이렇게 운반된 재활용품은 선별작업을 거쳐 재활용품 매각업체에 판매된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재활용품선별장은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작업인원을 필요로 한다. 물론 기계적처리시설(압축기, 파쇄기, 용융시설) 같은 경우는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전담하지만, 그 외에는 플라스틱류 및 병류 등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페트병 라벨제거 등은 단순, 반복 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는다.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과 자체적으로 2명의 환경미화원과 10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된다. 하지만 매일 10톤의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특히 토요일에는 재활용품 수거 청소차량은 운행을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만 되면 수거된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3월로 예정되어 있던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2월부터 조기시행 할 수 있게 요청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통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득계층이 주로 선발되는데 이 때문에 기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발해 놓고도 문제가 생긴다. 동해시생활환경센터 안에는 재활용선별장뿐만 아니라 소각장, 매립시설 등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까지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참여자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참여자들의 포기가 속출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안이 카풀(car pool)이었다. 다행히 환경미화원 중에 승합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출근길에 같이 타고 출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모든 요구 사항을 맞춰줄 순 없어서 애초 선발 예정인원인 10명보다 적은 8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인원을 요청하여 인원을 재배정 받았지만 더 이상 대기인원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일하시겠다고 남으신 분들인데, 그래서인지 재활용 담당자로서도 이분들한테 믿음이 간다. 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시지만 내가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할 때마다 아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지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고마움마저 느낀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선정에 공모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우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분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지금도 나는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힘든 업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날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만든다. 나아가 내가 이 일을 통해 우리 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더 커진다. 이 모든 게 사업참여자분들 덕분이다.



◀ 청남대

충북

- 자립의 그날까지 손병용 ●
- 다시 찾은 내 인생의 희망 김영옥 ●
- 기회를 경력으로 가케히유미꼬 ●
- 우리 모두 하나가 된 共同體 홍성현 ●
- 튼튼한 삶의 버팀목 임종구 ●
- 매일 보람찬 일자리 박순례 ●
- 더 나은 일자리의 출발점 김인엽 ●

자립의 그날까지



— 오븐점토공예품 제작사업 —

| 손병용 |



2012년 가을에 신니면사무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모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동안 지역일자리사업은 화단에 풀을 뽑거나 공원 청소 등,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공문에 포함된 사례를 살펴보니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오븐점토공예품을 만들어서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만의 일자리가 아닌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사업신청서를 냈습니다. 고맙게도 충주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격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5세 이하 3분과 65세 이상 1분과 함께 오븐점토공예품 제작, 판매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도 높고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약 한 달간 계속 배우고 연습하니 멋진 작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손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기초 작업과 포장작업으로 배치해 개인의 실력에 맞게 분업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충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과작품을 생산하였고 그다음은 복숭아를 작업하고 지금은 메주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작품에 비해 포장의 질이 낮았었는데 인건비 외에 재료비도 지원을 해주셔서 멋진 포장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작품을 만드는데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젠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자주 사업장에 방문하시어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일을 도와주십니다. 동네 사랑방처럼 주민분들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보시고는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와 작업자들 모두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매일 매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투른 것이 많아 작업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시골에 살면서 평생 농사일만 하시고 도심과 멀리 있어서 문화 혜택도 많이 못 받고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은 월급 받아가며 공예도 배우고 있으니 기쁘다고 하십

니다. 작업장에 나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겁다고 하시니 급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일자리를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저희 지역이 농산물도 유명하지만 멋진 공예품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전국에 알리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립도 하고 지역에 봉사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희망해 봅니다.



다시 찾은 내 인생의 희망



— 장미터널조성사업 —

| 김영옥 |

저는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니 이젠 농사일이 힘들어져서 쉬는 동안 전단지를 보며 여러 일들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을 하여, 사업에 참여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적인 불황기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더욱이 60이 가까운 나이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자꾸 손 벌리기도 미안했고 삶에 활력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운이 좋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워낙 신청자들이 많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장미터널입니다. 단양군의 아름다운 강변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은 하는 장미터널에서 일하게 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양을 찾



는 관광객이 꼭 들르는 곳이니만큼 일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 때도 있지만, 단양군민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단양군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라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도 주어지고 공익사업도 원활히 추진된다니 기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너무나도 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항상 일자리가 부족하여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힘든 저에게는 정말로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동네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잘되었다고 덩달아 좋아해 주니 힘이 났고 아들도 응원을 해주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를 경력으로



— 다문화여성 일본어강사 —

| 가케히유미꼬 |

저는 1998년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옥천으로 시집 온 가케히유미꼬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다른 엄마들은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원비가 많이 들고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어려워져 슬슬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때마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다문화강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다른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일이라서 용기를 내어 접수해 3월부터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수업을 준비하면서 일본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일본의 국기, 국화, 관광지, 화폐, 음식, 명절, 축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일본사람이지만 일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고 한국에 시집 온 지 15년이나 되어서 잊어버린 것도 있었는데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문화수업을 하게 된 학교는 제 막내딸이 다니는 삼양초등학교였고 첫 번째 교실이 바로 딸이 있는 1학년 1반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었지만,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긴장이 풀려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딸아이가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부러워서 나는 기분이 좋았어”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잘 안 돼 자신이 없었는데 딸아이의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수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수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트남, 중국의 문화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 이주여성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한번 두 번 수업할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문화수업을 좋아해 뿌듯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옥천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도 이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된 共同體



— 철쭉 테마거리 조성사업 —

| 홍성현 |

저는 올해 59세로 슬하에 2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중,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 보는 것도 크나큰 보람이라 생각되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분평동은 도농복합도시로 도심의 활기와 농촌의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웬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서류 접수 후 며칠 뒤에 확정 통보를 받았고, 고대하던 3월 4일, 드디어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에 지원하여 확정된 참여자는 모두 10명, 65세 이상 어르신 두 분을 포함해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다들 의욕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은 주민센터 담당직원, 동장님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동장님으로부터 앞으로 진행될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업은 분평동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철쭉(자산홍)테마거리조성사업으로 총 78개의 화단을 동주민센터 사거리 인도변에 조성하여 녹지공간과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어린이들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동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동장님의 격려 속에 동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대상지를 전반적으로 돌아 보고 첫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사철나무와 벽돌을 제거하고 화단조성선긋기작업과 흙고르기작업 등 본격적인 화단조성작업을 하며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니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단함보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주위 이웃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인근 상가에서 간간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간식거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고,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저와 제 동료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의미에 더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여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지친 동료들의 짐을 털어주고, 서로 말벗이 되어 심신이 피로한 하루를 달래주다 보니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나가버렸고, 그 사이 화단커팅과 테두리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젠 철쭉(자산홍)을 식재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가득 실려온 철쭉은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고 이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한껏 웅크린 모습이 마치 아이 같았습니다.

철쭉식재는 4인 1조, 2팀으로 편성되어 양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쭉 6,700주는 오래지 않아 78개의 화단 속에 촘촘히 잘 심겨졌습니다. 식재작업 내내 인근 상가주와 주민들이 주변에서 보시며, 삭막하기만 한 도심이 화사한 꽃들로 한층 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관내 유치원생들이 철쭉 화단을 많이 찾더군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화사하게 핀 꽃을 보며 느낀 점을 말해보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화단에 물을 주며 “잘 자라라~” 하고 외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보람을 넘어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껏 했던 일 중 유일하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보람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세월이 무심하듯 어느새 사업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같이 참여했던 동료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함께 흘렸던 소중한 땀방울은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지역공동체사업의 취지와 같이 우리 이웃과 협심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활짝 필 철쭉을 상상하듯,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합니다.

끝으로 같이 일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선두에 서서 솔선수범 작업에 임한 반장님과 최고령 두 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준다면 이 사회는 더 없이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삶의 버팀목



— 소류지 공원조성사업 —

| 임종구 |

안녕하세요. 저는 오근장동주민센터에서 올해 7월부터 소류지공원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임종구라고 합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수발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흔이 넘은 할머니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일을 구한다고 해도 작업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지니 혹여 사장님 눈 밖에 날까 싶어 눈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웃어주고 도와주던 직원들도 내가 늦어지는 만큼 본인들이 대신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차츰 사장님 눈치보다도 더 파가운 직원들 눈치가 보여 일을 오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 이라는 게시물을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시 봐도 분명히 '65세 이상' 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뽑아준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내고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꼭 나 같은 사람들이 두 명 더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 한 분과 나이보다



얼굴이 고와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못해 남들보다 뒤처질 때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일보다 더 큰 걸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그동안 잊고 있던 그림고 그리운 말동무가 생긴 것입니다. 비슷한 형편이라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함께 일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고 매일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더울 때는 시원한 물도 챙겨다 주는 고마운 우리 담당자를 보면, 눈치를 보며 일하던 예전 생각이나 고맙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열심히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나도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신바람 나서 주민센터로 출근을 하다 보니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은 우리 부부에게 넘칠 만큼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피자를 좋아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 피자를 사 가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에게 값진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보람찬 일자리



— 시가지 인도 및 자전거길 정비사업 —

| 박순례 |

저는 보은군에서 '시가지인도 및 자전거길정비사업'이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아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 또 혼자 살고 있어서 생계를 이어 가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청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생계도 막막하고 주로 혼자 있으려니 적적하기만 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큰, 돈을 벌게 되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아침 일하러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다 보면 적적하지도 않고 시간도 참 빨리 가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전거길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전거길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처음에는 뭐가 했는데, 보은 여기저기에 나 있는 자전거길을 청소하



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참 잘 만들어놨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 길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있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읍내의 동다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그날그날 일할 곳으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관리하는 자전거길이 보은 여기저기 있어 매일 같은 곳으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피곤하기도 했는데 익숙해지니 오히려 재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자전거길을 예쁘게 만들어 놔는데 여름이 되면 길가의 잡초가 무성해서 그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뽑다 보니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길가에 제초제를 뿌릴 수도 없어서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껏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얼마 지나면 다시 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계속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잡초를 뽑고, 길을 쓸고, 길가의 쓰레기를 주워서 깔끔해진 자전거길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고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일하는 곳이 매일 여기저기 정해지지 않아서 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점심을 싸서 다 같이 먹거나 어떤 때는 몇 명이 점심 당번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싸 오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같이 먹는 점심이 정말 맛있고 즐겁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서 다행이었는데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일하는 데에 감사하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내년에도 계속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혼자서 먹고 살기 막막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일자리도 주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의 출발점



— 야생화길 조성사업 —

| 김인업 |

저는 17년 정도 지게차를 운영하다 괴산군으로 귀농하였습니다. 귀농하여 천마 농장사업을 4~5년 정도 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농장 사업은 그만 두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그러다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괴산군의 관광명소인 산막이옛길을 뒤이어 조성 중인 충청도 양반길이였습니다. 야생화길 예정지에서 제초작업, 야생화종자 파종 및 야생화포트 묘식재 등의 일을 했습니다. 임금도 적었고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일곱 명 중 남자면서 젊은 층에 들다 보니 제가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작업은 제초작업 및 흙고르기작업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 야생화종자 파종 및 포트 묘식재 업무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내 업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근로자분들을 차에 태워 출퇴근을 해결해주는 것도 반장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번다는 생각으로만 참여한 일이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을 이끌고 일을 하고 출퇴근도 해결해 주다 보니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성 중인 야생화길이 점점 관광명소로 변하는 모습, 야생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관광객의 모습을 보면서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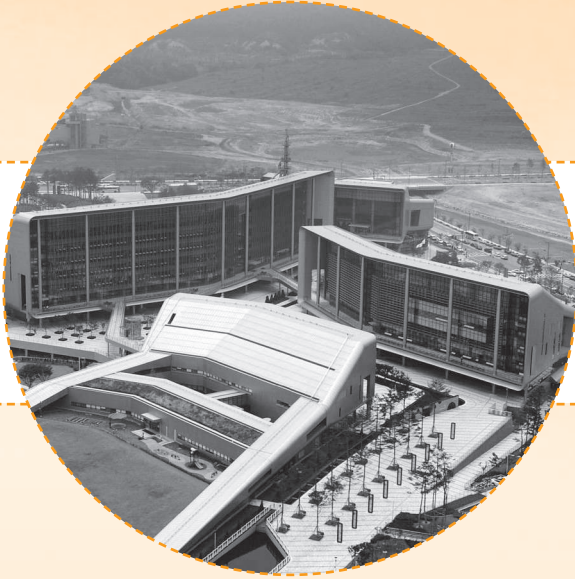
기간이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 일반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만 있을 수 없는 사정에 기업의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군청에서 취업아카데미교육에 참석하게 해주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괴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님과 면담을 하였고 예전 지게차 경력을 살려서 괴산군 관내업체와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겠다는 취업상담사님의 말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이 사업은 얼핏 보면 임금도 적고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 중요치 않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지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반업체와의 면접기회를 제공해주는 취업알선도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근로자의 일반업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더 나은 일자리를 꿈꾸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충남

◀ 충남도청 신청사

- 자랑스러운 나의 일자리 김덕례 ●
- 생태해설사로 인생 3막을 펼치며 안병현 ●
-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준 행복 정영임 ●

자랑스러운 나의 일자리



— 해미읍성 복식체험장 —

| 김덕례 |



2013년 3월 4일, 드디어 나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푼 마음으로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서산의 자랑거리인 해미읍성에서 옛 조선시대에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복식을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전통복식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해미읍성으로 처음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해미읍성에 들어서 보니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하게 될 복식 체험을 비롯하여 민속놀이, 죽공예, 삼베짜기, 짚풀공예체험 등으로 해미읍성에 활기가 넘쳐났다.

일자리참여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보기 좋게 변해가는 해미읍성을 보며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어르신, 청년,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통복식체험은 최고의 인기였다. 관광객들에게 옛 조선시대 선조들이 입었던 임금 옷이나 포도대장 옷 등을 입어보게 하고 모자 쓰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오겠다는 분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나를 이모라 부르며 함께 사진 찍자는 외국인도 있었다.

무료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이니 가르쳐 주는 우리나라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서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또한 서로 멋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 일을 한다기보다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분은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했는데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여 나아가 국가를 위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전해 줄 수 있는 일이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대다수 관광객은 참으로 해미읍성이 깨끗하다, 잔디밭이 너무나 잘 가꾸어졌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로 이런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람차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지금도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KBS 대하드라마인 근초고왕 촬영지이기도 한, 해미읍성 전통복식체험장에서 자부심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사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태해설사로 인생 3막을 펼치며



— 국립생태원 생태해설사 —

| 안병현 |

4년 전 생태적 삶을 꿈꾸며 사회적 이민을 단행했다. 인생 백세 시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선 신들 젊은 나이에 직업란에 거침없이 농업이라고 적어넣는 촌부가 되었다. 사실 농업이란 것도 없는, 수백 평의 밭떼기에 채소농사가 전부인 반 귀촌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착한농부공동체를 꾸려 착한 생산과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뜻을 함께했다. 나와 내 가족이 먹는 참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고, 로컬 푸드를 먹고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대형마트 안 가기 등의 검소한 소비를 실천하며 생태적 삶을 누리는 시골살이에 하루하루가 행복하였다. 마당에 큰 개를 키우고 그 녀석과 함께 마을길을 산책하고, 화단에 예쁜 꽃과 나무를 가꾸며 도시에서 꿈꾸었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덧 여유자금을 까먹으며 소비적 삶을 산 지 3년, 처음 시골 내려올 때 처음 3년은 까먹으며 살고 4년째부터는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살겠다고



다짐했었기에 무언가 소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자연농업으로 짓는 채소농사는 겨우 자급자족 수준으로 큰 소득이 안 되었다.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는 도시에서보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천성적으로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기에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생태 도시를 지향하는 서천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다. 풀과 자연, 특히 야생화에 관심이 많아 야생화동호회 활동을 하며 전국을 다니며 사진과 여행을 즐겼다. 환경단체 회원으로 환경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서천군에서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귀농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응시하였다. 1년여에 걸쳐 서천생태문화학교, 갯벌생태안내인(국토부인증), 자연환경해설사(환경부인증)로 이어지는 교육을 수료하였다.

철새가 찾아오는 곳은 생태가 살아있고 환경이 깨끗한 곳이다. 공장이 없는 청정 생태도시 서천은 전국 4대 철새도래지로 철새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러나 그 철새들을 보호하고 생태를 걱정하는 생태환경지킴이들이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었

다. 생태해설사들이 양성됨으로 생태도시 서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촘촘해졌다. 그러나 막상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나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너무도 부족하였다. 해설사들이 무임노후자원봉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보니 일자리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

마침 2013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생태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나도 주저 없이 신청하여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에서 안내해설 및 식물자원 모니터링과 자연환경 보호활동을 하게 되었다. 금강호 주변 식물자원 조사, 서천연안 사구식물, 습지식물, 유해식물 조사 및 연안 부유쓰레기 실태조사 등의 일을 맡게 되었다.

도시에서 30여 년 직장생활을 했었지만, 취미와 관심분야에 맞는 근무를 해 본 적이 없었다. 이곳 시골에서 그런 꿈을 이루었다. 야생화를 좋아하고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고 걷기와 사진과 여행을 좋아하는데, 매일 생태와 환경을 논하고 식물자원을 관찰하며, 서천연안 74km를 걸으며 연안자원조사를 하는 직업이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랴. 그리고 몇 달 만에 국립생태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국립생태원은 서천의 생태해설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종목적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생태원 취업을 기약하며 생태해설사 과정을 공부한다. 전국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에 대한민국의 생태를 책임지는 국립기관인 국립생태원이 34만 평 매머드급 규모로 자리 잡게 된 건 서천군민에게 크나큰 행운이고 행복이다. 이곳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생태해설을 하며 평생직업을 갖는 비전을 생태해설사들은 누구나 꿈꾸었다.

그곳에서 안내해설사들을 뽑는다며 서천군의 생태해설사들이 정찰을 잘할 수 있게 선발대로서 길을 터달라는 군청 담당공무원의 반 협박(?)겸 요청을 받았다. 국립생태원에서 일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기꺼이 응했고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을 거쳐 최종 5명이 선발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전문해설의 자리는 전공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꿈을 못 이루고 대신 관람객안내와 외부경관해설을 맡게 되었다. 학력철폐 시대에 국립기관에서 학력장벽을 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해설분야는 학력보다 경력과 경험이 더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을 정문에서 만나 주제별전시관(에코리움)까지 안내하며 경관자원해설을 하는 안내인의 역할은 체력과 지식과 경험을 모두 요구하는 어려운 자리이다.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안내해설을 맡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서천군의 생태자원인 철새와 갯벌, 식물자원에 대한 해설경험과 지식은 이곳에서도 해설자원으로 잘 활용하게 되었고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그들에게 서천군의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는 부가적인 소득도 얻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생물학 전공은 아니었지만 꽃과 나무에 취미와 관심을 가진 나로서는 열심히 즐겁게 일하면서 나를 더욱 계발할 수 있는 곳이다. 은퇴세대로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이 기쁘기만 하다.

다만 귀농의 가치를 일깨워주던 농사를 접어야만 한다는 게 아쉽다. 그저 텃밭 농사로서 그 아쉬움을 달래야만 할 듯하다.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시골집의 안팎이 일거리 천지인데 이제 혼자서 해야 한다. 농사도 때가 있는 법, 어제는 아내 혼자서 종일 마늘을 캐고는 힘들어했다.

시골로 사회적 이민을 온,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정점인 58년 개띠의 마이너리그 인생은 이렇게 순수하며 진지하기만 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생 3막을 펼치며 서천군민으로서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태와 환경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다짐해본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준 행복



— 짚풀공예 사업 —

| 정영임 |

우리 내산면 구례울마을은 부여읍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25여km 떨어진 전형적인 산골 농촌마을로 주로 고추 및 논농사를 영위하며 지내고 있는 청정마을이다.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귀농한 지 1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 논농사와 밭작물 등 소규모 농사에 종사하며 마을의 구례울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지내왔다. 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사무장직을 맡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일을 다수 추진하게 되었는데 올 5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마을의 특성을 살린 짚풀공예사업을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견이 있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게 어려웠으나 마을의 대표자들이 한번 해보자 결심하니 마을주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몇몇 어르신들은 짚풀공예의 경험이 있어 수월하게 일하셨지만, 대다수의 주민은 짚풀공예 방법을 전수받으면서 하나하나 어렵게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새끼 꼬는 일조차 낯설어 보였는데 모양을 갖춰가는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



하니 재미까지 생겼다. 또한 짚풀공예사업이 지방 일간지와 방송에 소개되면서 지역주민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구례읍마을짚풀공예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함께 모여서 작품을 제작하며 마을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사업,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해 주었다.

함께 모여서 일하며, 소득도 창출하고 웃을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마을 주민공동체일자리가 이제야 우리 곁에 왔는지 아쉽다. 좀 더 잘 운영해서 다른 사업장에 모범이 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짚풀공예작품이 필요하신 분, 짚공예체험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을공동체로 연락 주세요.

구례읍체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희망마을로 기선정되었고, 2014년도 마을기업으로 신청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을 알리는 대외 일자리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을의 짚풀공예사업 제안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여군, 충청남도, 안전행정부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 새만금

전북

녹색자전거를 타 보셨나요 오병훈 ●

귀촌 새내기들의 힘이 되어준 일자리 오정운 ●

허브향 가득한 지역공동체 박상미 ●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마을 이경환 ●

행복한 일자리, 당당한 우리 가족 하사노바 마트류바 ●

녹색자전거를 타 보셨나요



— 방치자전거 수리사업 —

| 오병훈 |



녹색교통만들기사업을 시작한 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많이 느꼈기에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내에 방치된 자전거수거를 위해 직접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찾아가 사업상담을 하는 일과 자전거조립 보조 일을 했습니다. 수거 해 온 자전거를 분해하고 깨끗이 세척하여 새로 코팅을 하고 다시 조립하면 멋진 ‘녹색자전거’가 탄생합니다.

방치되고 버려진 자전거가 말끔하게 수리되어 한 대 두 대 쌓이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뿌듯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자전거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상반기 녹색교통만들기사업으로 생산한 ‘녹색자전거’ 110대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통학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간혹 길을 지나다 우리가 생산한 ‘녹색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을 볼 때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또 다른 보람은 바로 출장수리에서 옵니다. 출장수리란 멀어서 자전거를 고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지나가지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정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무척 좋은 분들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매번 노동의 보람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분위기로 함께해주신 어르신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그동안 느꼈던 소중한 것들은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갈 것입니다.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녹색교통만들기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는 가슴 따뜻한 익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귀촌 새내기 힘이 되어준 일자리



— 지리산 둘레길 안내사업 —

| 오정윤 |

지리산둘레길은 3개 도(道)에 걸쳐 5개 시군 마을을 연결한 장거리 도보 길을 말한다. 총 길이 274km로 그중 남원은 3개 구간(1~3코스) 43.7km이다. 내가 배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이 길을 명품 둘레길로 만들기 위한 남원시 지리산둘레길기초 인프라구축사업이었다.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주천안내소에서 2명, 인월안내센터에서 3명, 산내안내소에서 2명,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1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탐방로 안내, 인근 민박집과 맛집 소개, 남원 주변 관광 안내 등이다.

지리산둘레 길에 대한 정보를 탐방객에게 소개하려면 나름의 지식뿐만 아니라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정보량도 많아서 지리산둘레길의 구간별 거리와 소요시간, 주요 지점의 유래와 인접 마을의 특징, 주요 특산물, 농사의 진행상황 등을 숙지하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내가 근무한 곳은 산내안내소로, 인월안내센터에서 함양 금계까지 이어지는 3구간, 신선둘레길의 장항마을에 있다. 알록달록 단풍이 물든 안내소에서 탐방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은 무척 행복했다. 큰 기대를 품고 지리산을 찾아온 분들을 만나는 일은



내게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여행자와 안내자이기 이전에 산을 찾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 역시 여행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지리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친해졌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감사한 일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내게 정말 감사하고 뜻 깊은 일이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내기에게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서로 이해하는 데 이만한 기회가 또 있었을까 싶다.

지금은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둘레길이야기꾼 양성교육도 받고 있다. 덕분에 지리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소양도 기르고 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했던가. 처음엔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게 되는 경제적 대가가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내가 남원에 와서 사는 데 큰 힘이 되어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허브향 가득한 지역공동체



— 허브육성지원사업 —

| 박상미 |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남원허브육성지원사업단에서 7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허브에 관심이 많았기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허브해설 및 체험진행, 카페테리아운영 등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일자리였습니다. 고향에서 허브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던 저에게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고용안전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3월 중순 남원시 남원허브육성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는 허브해설사, 경관관리, 카페테리아운영 등의 일을 했습니다. 허브해설을 할 때는 남원시의 허브산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원시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4월 초 청주에서 생활체육회 동호회원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발대로 오셨다는 이분들께 저는 바래봉철쭉제에 관한 정보와 지리산허브밸리에 대해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5월 축제 때 이분들이 동호회원들을 모두 이끌고 다시 남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해설사로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해설사로 일하면서 외부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오해와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으며 제대로 지역을 알리고 있다는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근무할 때는 남원시의 허브산업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남원산 허브의 효능과 약리작용 등을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전시실 안내를 하면서는 허브와 또 다른 야생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은 허브식재와 수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만큼 허브도 제때 심고 제때 거둬야 합니다. 고품질의 허브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덥고 힘든 시기에도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세상에 편한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했던 일은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이었습니다. 허브향과 함께 서로를 치유하면서 일해온 지낸 시간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허브향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남원의 일자리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마을



— 넝쿨공예품 제작사업 —

| 이경환 |

안녕하세요! 전북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장 이경환입니다. 우리 마을 일자리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처음 적상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넝쿨로 친환경 자연공예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농번기라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돈벌이도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손재주가 있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일부 뜻있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렵지만, 함께 시작해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돈을 떠나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합니다. 일하면서 관계도 좋아져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없다며 걱정하시던 어르신도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처음 시작은 다섯 명이었지만 이젠 마을 전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넝쿨을 채취하고 이걸 찌고 삶아 수차례 널어 말려야 합니다. 일하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베이고 멍들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찮게 굴러다니던 넝쿨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잔일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완성하고 나면 뿌듯함과 희열을 느낍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접하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바로 뒤에 행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해보고 후회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지요. 이젠 새로운 씨앗 하나를 마을에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자리, 당당한 우리 가족



— 다문화여성 강사활동 —

| 하사노바 마트류바 |

저는 2013년 3월부터 고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로 일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진 첫 직장이었지요. 그 경험담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농촌의 작은 도시인 고창군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일이나 단순한 생산직, 그리고 농사일 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자리입니다. 가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어렵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김제시에서 다문화강사를 위한 직업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지금은 당당하게 저의 모국인 우즈베키스탄을 한국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더없이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문화강사를 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나 풍습 등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나라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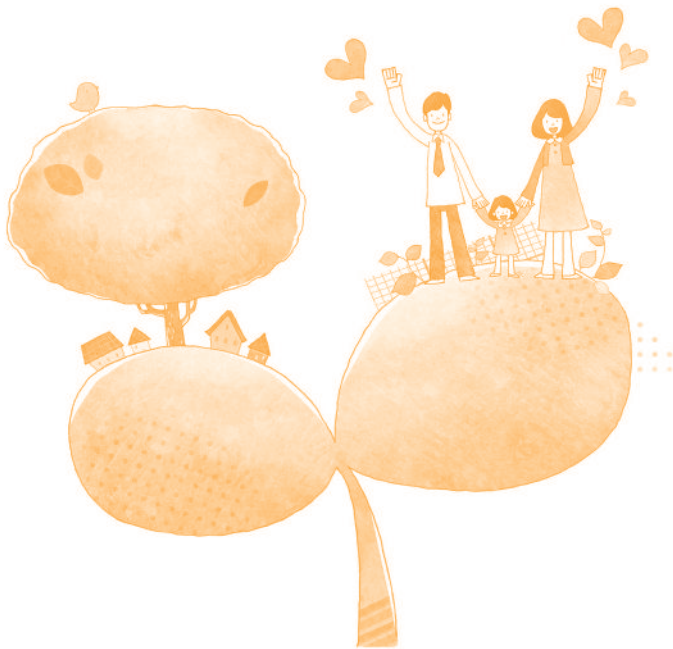
처음엔 많이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익숙지 않아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구요. 그럴 때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선생님들과 다른 강사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격려와 용기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일에 익숙해져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저의 노력으로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옷을 사줄 때는 정말 흐뭇합니다. 제가 일을 한 덕분에 매월 남편이 내던 건강보험료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험료를 제가 내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제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 같아 뿌듯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집에서 가정일과 아이 키우는 일에 지쳐갑니다. 한국어도 능숙하지 못해 자기표현이 어렵다 보니 가족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안일만 하는 무능한 주부로 비칠까 걱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적 배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고기보다는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빵을 주는 대신 밀가루와 이스트 등으로 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일반적인 한국인 어머니 아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황의 끝에서 다문화강사라는 행복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신 고창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꿈을 키워가고 있을 이주여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남

◀ 순천만

- 희망을 심고 가꾸는 일자리 이문자 ●
-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는 행복한 이주민 레티스영 ●
- 정원박람회장에서 힐링하세요 정영옥 ●
- 우리는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 정현주 ●

희망을 심고 가꾸는 일자리



— 녹색길 조성사업 —

| 이문자 |



오늘도 차가운 비바람을 헤치며 출근을 한다. 희망의 꿈을 안고 달려간 그곳엔 함께 꿈을 만들어갈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일과는 출석체크 및 안전교육으로 시작한다. 녹록지 않은 일과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참여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 근로인 셈이다.

내가 맡은 일은 아름다운 보성에 녹색명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꽃과 나무를 심어 꽃이 피기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잡초를 매고 전정하고 퇴비를 주고 세심

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명품길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심혈을 기울여 가꾼 싹들은 오랜 고통과 인내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연에서 삶을 배운다. 고통도 있다. 행인의 손길에 무심히 잘려나갔을 때는 내 마음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침과 오후에 작업장까지 20km 정도의 거리를 차량으로 움직인다. 일하다 보면 금세 시간이 흘러간다. 늘 일이 끊기지 않아 고되긴 하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다. 장미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꽃이 하늘거리는 모습을 볼 때, 한 송이 꽃들이 내일 아침에 내게 심어줄 꿈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활짝 핀 꽃그늘 아래서 그들의 땀과 나의 땀이 같이 공존하며 웃고 있구나 싶어 다시금 돌아보며 하루를 지낸다. 마치 내 가족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녀석들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변 꽃밭을 보러 달리던 차량이 멈춰 구경할 때가 있다.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해맑게 웃으며 포즈를 취할 때, 행복한 추억을 담아갈 그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잠시 땀방울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하나 둘 셋” 하며 셔터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아마도 그럴 때 쓰는 말이라.

사업장에는 늘 안전이 강조된다. 삽과 괭이, 호미, 낫 같은 도구들을 다루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해충이나 뱀 같은 해로운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니 늘 조심한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염려하는 사이 인간관계도 좋아졌다. 가끔 생각이 달라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대개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인지라 금세 화해를 했다. 물 한 모금도 나눠 마시는 우리들의 점심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희망’이란 단어가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일으켜 세우듯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보람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는 행복한 이주민



— 다문화여성강사 —

| 레티스영 |



저는 장성군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말이 익숙지 못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래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습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근하여 센터직원들과 같이 지내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선생님께 초등학교 1학년 교재로 국어와 수학을 배웠습니다. 베트남에서 정식 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국어 문장과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초등학생의 엄마로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익혔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아 아쉽기는 하지만 많이 배우게 되어 흐뭇한 마음입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요리시간에 ‘베트남쌀국수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재료도 구하고 요리도 했습니다. 베트남 고추가 정말 맵다며 눈물 콧물을 흘리던 아이들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주민으로서 보람을 느낀 일은 또 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때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베트남 요리를 맛보시고는 맛있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장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서 주어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아이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놀리거나 비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숙해졌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주민가정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알아야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저로 인하여 아이들이 베트남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다문화 관련 학습을 지도하는 한편 여러 나라의 놀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교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문화와 인종의 편견을 없애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박람회장에서 힐링하세요



—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

| 정영욱 |



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영욱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계절은 상큼한 봄을 뒤로 보내고 무성한 여름이 왔는데, 우리네 고용시장은 아직도 겨울인 듯 삭막하였습니다. 인력 사무소를 전전공공하면서 겨우 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청 소속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직장이 없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3월부터 울타리 이영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재나 목재가 아닌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울타리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완성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관람객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정원박람회 사업장에 나와 안전교육을 받고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화단 잡초 제거, 물주기, 의자와 보행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에 참여합니다. 일은 고되나 주변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에서 야생 진드기예방약품을 지원해주었고 팔 토시나 음료수 같은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책감으로 허송세월 하던 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이 한국의 정원문화에 감탄할 때는 너무 행복하여 짜릿한 감동마저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제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노력의 끝에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우리는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



— 숲생태 해설사 —

| 정현주 |

나는 그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오랜 세월을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최근 어린이를 위한 숲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책과 집, 학교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이 안쓰러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청 참여를 했다.

그때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원하는 ‘숲생태해설가’ 모집에 등록하고 19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마침내 내게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즐겁고 보람있는 일임이 틀림없다. 초·중·고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뛰고 놀며 보내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목포시에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숲생태해설사’를 모집한다는 희소식이 들렸다. 자격도 정규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고 하였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그때의 심정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산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금쯤 겨울눈은 어떤 모양일까, 꽃눈이 먼저일까 잎눈이 먼저일까 눈앞에 가물가물하고 있던 터라 나는 생각하고 말고도 없이 바로 신청했다.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희망에 부풀었다.



며칠 후 목포시청에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함께 일할 6명과 담당자와 미팅을 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토론하고 각자 식생조사 및 숲 해설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이 기간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코스로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등을 깊이 있게 연구·조사했다. 우리는 숲의 소중함을, 인간이 숲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깎고 파헤친 자연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일깨우고자 했다. 또한 자연은 스스로 치유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도 말하고 싶었다.

유치원을 시작으로 ‘숲교실’의 문을 열었다. 반응은 상상 못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힘써주셨다.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수업이 진행될 때면 한쪽으로 비켜가거나, 정자를 내어주시는 등 배려해주었다. 그 안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서로 감사의 눈인사를 나누는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앞에 반짝반짝 털이 있어요”, “이 구멍은 뭐예요?”, “이 꽃은 모양이 특이해요. 왜 그래요?” 라고 실 새 없이 질문을 할 때면 ‘그래 이 세상을 다 가져가거라’ 하는 마음으로 대답해준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이 교실을 했을 때도 기억에 남는다. 부모들의 손길이 부족한 아이들이다 보니 더욱 자연과 함께 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함께 숲을 내려오면서 약속했다. 인류가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할 게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해주기로. 나 역시도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그 편리함에 젖어 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핵의 위험을 전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아이러니하게도 핵발전소 직원들을 상대로 숲해설을 했다. 30~50대까지의 20명이 넘는 인원이 오신다니 조금 부담도 됐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자연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 청진기로 나무의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잎의 증산작용이 지구의 열을 얼마나 식혀주는지도 직접 실험을 통해 알려주었다. 아빠와 아이들이 숲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가르쳐 드렸더니 반응이 좋았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이 왔다. 너무 유익했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오겠다고 했다. 나는 무언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제 하반기에 만날 또 다른 인연들을 기대한다. 벌써부터 “우리가 먼저예요”라며 전화를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 나는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가슴이 부푼다. 왜 그 고운 단풍이 물들어 우리를 설레게 하는지, 밤과 도토리 왜 뚝은 껍질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지, 숲의 열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경북

◀ 다례제

- 꽃향기 가득한 우리 동네 김점순 ●
- 흘린 땀방울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자리 이찬주 ●
- 희망의 재봉틀 소리 추계홍 ●
- 꿈의 농장에서 자라난 행복 정유순 ●

꽃향기 가득한 우리 동네



— 꽃밭조성사업 —

| 김점순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하던 중에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그전에 지나다니면서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일하는 장면을 종종 보았는데, 그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상의 전부였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점점 달라졌다. 나도 모르게 사명감과 애착심이 생겼다.

내가 참여한 사업은 누리공원관리 및 유희공간 꽃밭조성사업이었다. 평소에 꽃을 좋아하고 꽃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는 나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장한아파트 뒤편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살면서 많은 꽃밭을 보아 왔지만 그렇게 큰 규모로 꽃을 심기는 처음이었다. 영산홍과 팬지 등 봄꽃을 참여자 7명이 힘을 모아 식재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힘은 들었지만 지나다니면서 꽃을 구경할 주민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일하는 도중에 근처에 사는 한 아주머니께서 고생한다면서 떡과 음료수를 갖다 주었는데 그 맛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누리공원 곳곳에 수목을 보식(補植)하고 잡풀을 제거하는 일도 하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기력하며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저 생계를 위한 별이를 하기에 급급하였고 앞만 보고 살았다. 이 일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이 짐도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지역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동료들도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었기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정도였다. 함께 일을 하며 언니, 동생 같은 동료로 얻은 것도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꽃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그렇기에 주변에 꽃이 많고 그 향기가 널리 퍼진다면 신평2동 주민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모두 온화한 마음을 지니며 화를 덜 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나를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준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끝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조건과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다.

흘린 땀방울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자리



— 야생화 재배사업 —

| 이찬주 |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나에겐 계절을 만끽할 여유가 없었다. 일정한 돈벌이가 없어 항상 걱정이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되고 나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젊은이들도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요즘, 4개월간의 일자리는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첫 출근 날, 둘레길 화단에 야생화를 심는다는 계획을 듣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자주 방문했던 곳에서 작업한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다. 먼저 꽃을 심기 좋도록 화단의 땅을 고르고 물길을 내는 작업을 했다. 삽과 괭이로 땅을 헤집는 작업이라 고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흙과 피약별을 막아주는 숲의 나무들은 일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숲 속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일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던 하루 전날, 새마을지도자 및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정비해둔 화단에 야생화를 심는 작업을 하였다. 65개나 되는 화단을 모두 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노력한 결과, 예상보다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예보대로 다음 날 비가 내렸다. 비가 온 다음 날 둘레길에 와보니 빗물을 머금은 40여 종의 야생화들이 초록의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앞으로 잘 자라 둘레길 등산객들에게 야생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야생화심기를 마치고는 친환경농작물체험장 조성작업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이산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농작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가을에 열리는 메뚜기 축제 때는 가을걷이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계획되었다고 들었다. 그전에 농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은근히 걱정도 되었지만, 면내 환경정화 같은 단순작업보다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농사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애정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수확 시기에 제대로 결실을 못 맺을 수도 있다. 흘린 땀방울의 양은 수확물의 양과 비례한다. 열심히 일할수록 수확의 기쁨이 크다. 일한 만큼의 보답을 가져다주는 것이 농사이니 그만큼 정직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나는 일에 애정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로서 결실을 맺는 과정까지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확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집 텃밭을 가꾸듯이 하나하나 공들여 심었다.

농사는 정직함과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일이다. 피약별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기에 몸은 고단해도 다음날 다양한 농작물들이 새로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생명은 신비롭다. 내가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싱그럽게 올라오는 연둣빛 새싹을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

그동안 여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야생화를 심는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잡초제거, 쓰레기줍기 등이 주된 일이었다. 상대적으로 일은 편했지만 보람은 이번 것이 훨씬 컸다. 둘레길에서 작업하던 도중에 야생화화단 앞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꽃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아이가 꽃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야생화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누는 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타인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비록 생계를 위해서 신청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일은 내게도, 주민들에게도 큰 선물이었다.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풍족해졌다. 우리가 조성한 돛뱀실 둘레길과 친환경농작물체험장을 보고 이산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행복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흘렸던 땀방울만큼이나 값진 행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희망의 재봉틀 소리



— 다문화여성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 추계홍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추계홍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으며 남편과 4살 된 예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간단한 농사일은 거들 줄 알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데다 조선족이 아니라 아직 한국말이 서툴고 어린아이까지 있어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다문화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동료들도 저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어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일했던 푸이엣처럼 여기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리는 같은 처지인 분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아줌마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했으니까요. 저도 자신의 변화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제게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준 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나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와 앞치마 등을 만듭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장바구니와 유치원 어린이들이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앞치마는 제법 인기가 있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모여 버려진 현수막을 자르고 붙여 세상에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오고 가는 말은 서로 다르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줍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희망의 재봉틀 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농장에서 자라난 행복



— 메뚜기 축제 지원사업 —

| 정유순 |

피약벌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이산면사무소에 도착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첫날, 남자 4명, 여자 8명이 모여 밭에 옥수수를 심었다. 날도 더웠지만 경험이 없던 터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일주일만 버텨보기로 했다. 45세인 나는 참여자 중 제일 어렸고, 제일 연세 높은 어르신은 77세나 되었다. 조금씩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지만 함께 일하는 12명 모두 화합이 잘 되어 그 무더운 여름에도 다툼 한 번 없이 지냈다. 시원한 물을 나누어 마시며, 점심엔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대했다.

일은 주로 메뚜기축제 현장과 돛밤실둘레길 정비, 제조작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메뚜기축제를 준비하고자 여러 곡식과 목화, 고구마와 땅콩을 심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뱀오이, 여주, 호박, 작두콩, 조롱박으로 이루어진 넝쿨터널을 조성하였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주위의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었으며, 새나 너구리가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망을 씌우는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여름 내내 그렇게 땀을 흘렸다. 곡식이 하나하나 여물 때, 넝쿨터널이 날이 갈수록 우거져 제 모습을 갖추는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흘린 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왔다. 우리 축제 현장에 허수아비를 세웠다. 허수아비를 땅에 고정하는 일은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복장과 얼굴을 가진 200여 개의 허수아비가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반겨줄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10월 5일 이산면 메뚜기잡기축제가 열렸다. 우리가 재배한 고구마와 땅콩밭에서 농작물캐기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우리는 안내요원 역할을 했다. 고구마 같은 손으로 호미질을 해가며 두 손으로 쥐어야 할 만큼 큰 고구마를 캐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은 이제까지의 고생을 모두 잊게 해주었다.

메뚜기잡기 행사가 모두 끝났다. 일자리사업의 마지막은 이제까지 키웠던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농작물체험장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체험장에 남은 고구마를 캐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남은 고구마를 모두 캐내자 컨테이너 박스로 서른 상자나 되었다. 이 고구마들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 기부되었다. 축제 때는 아이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고, 가을걷이 후에는 겨우내 어르신들이 드실 고구마를 드릴 수 있으니 기쁨이 두 배였다.

개인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는 처음이라 다른 곳은 어땠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꿈의 농장’ 조성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큰 보람이었다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 다음 일자리사업 또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서로 챙기고 보살펴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우포늪

경남

- 탈 없는 세상 만들기 박진우 ●
- 따뜻한 봄날의 일자리 김종금 ●
- 슬픔은 삭둑, 희망은 예쁘게 허미정 ●
-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다 팜티조이 ●
- 나 라응억짼, 이제는 라성희입니다. 라성희 ●

탈 없는 세상 만들기



— 탈 제작사업 —

| 박진우 |



20대가 지나가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지금, 내겐 뛰어난 학력도, 특별한 기술도 없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경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상사를 모시기도 싫어, 시작도 못 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다. 그저 ‘취업은 힘들구나’, 하는 생각만 했다. 그러던 차에 시청에 서류를 발부하러 갔다가 우연히 시정 소식지를 보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한 기운이 끌려 유심히 소식지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내문이 있는 게 아닌가! 수록된 김해시 사업장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배우며 일하고 있는 ‘김해가락오광대 전통기술전수사업’ 이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할 때는 많이 망설였다. 주위의 지인들이 “전통문화를 하는 기술자 및 공예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중간에 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고 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조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신청을 했다.

어릴 적 기억도 한몫했다. 예전에 집 주위에 전통공예 하는 분의 계셨는데 그분의 인상이 무척 좋았었다.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전통기술을 배우며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비록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아도, 남는 시간에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살 수는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인 김해가락오광대 탈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탈의 종류가 무려 21가지나 되어 처음엔 이름조차 외우기 힘들었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질 수 있었다.

우리 지역 전통 탈에서 무한한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다.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좋아 상품성이 있다. 실제로 각 탈을 이용해 만든 탈숯시계, 노리개, 열쇠고리, 컵, 액자, 손수건, 등 19개의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잘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있는데 주변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는다. 그곳에서 오광대 탈 체험을 하는 어린 친구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듯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할수록 전통문화를 알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전통기술 사업은 무의미했던 내 삶에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같이 ‘탈’ 을 보며 산다. 하지만 내 미래는 ‘탈’ 없이 계속 순항하기를 항상 바란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탈’ 없이 잘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워야겠다.



따뜻한 봄날의 일자리



— 유채단지 조성사업 —

| 김종금 |

생활이 팍팍하고 삶에 큰 흥미가 없던 2013년 1월 말, 길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현수막을 보고 읍사무소로 찾아갔다.

그동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시골에서 여자가 60세가 넘는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신청하고도 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월경, 남지읍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었던 직원이 전화를 통해 참여자로 선발되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무척 기뻐다. 덕분에 올해 생활을 꾸려나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다. 비록 한 달에 40여만 원 정도의 적은 임금이었지만 나에게겐 무척 큰돈이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걱정도 되었지만 새로운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작업 첫날, 모임 장소엔 나와 형편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나이들도 비슷해서 서먹하지 않았다.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고 일하는 사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속한 남지 낙동강변 사업장에는 전국에서 단일규모 최대의 유채단지가 있다. 4월에 있을 유채축제 일정에 맞추어 유채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다듬는 게 우리의 일이었다.

일이 고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따스한 봄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조를 편성해 유채단지 입구에 꽃을 심고 경관을 예쁘게 꾸몄다. 작업을 하면서 축제 때 화려한 유채꽃을 보며 감탄할 관광객들을 상상하며 즐겁게 일했다.

드디어 남지유채축제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았다. 나 역시 주말에 나와 사람들이 유채꽃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들 즐거워 보였다. 우리가 힘들여 조성해놓은 유채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이 이렇게나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채가 한철 피고 지는 꽃인지라, 막상 꽃이 지고 축제가 끝나자 그때의 기억들이 아스라해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축제가 끝난 지금, 우리는 낙동강변 체육공원에서 일한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야구장, 자전거길, 운동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유채단지와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걱정도 있다. 애써 꾸며놓은 시설물을 시민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평소 아무 생각이 없던 내게 애향심과 공공시설물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생긴 것 같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일하는 보람은 물론 서로 돕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내 인생 즐거운 봄날의 일자리였던 것이다.

슬픔은 삭둑, 희망은 예쁘게



- 찾아가는 미용실사업 -

| 허미정 |



내가 사는 이곳 남해군은 전체 인구의 32.1%가 노인인 초고령 지역이자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따라서 일자리가 많지 않아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 나로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비교적 시간도 여유롭고 쓸 수 있고 살림
살이에 보탬도 되는 일을 찾을 수 있었으니 바로 '찾아가는 미용실' 사업이다.

‘찾아가는 미용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머리 손질을 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우선 대상자 분들의 성함과 주소만으로 집을 찾아가기가 좀처럼 어려웠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지만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많아 결국 물어 물어 한 집씩 찾아다녀야 했다. 집이 너무 가파른 곳에 있어 무거운 미용도구를 들고 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오토바이나 리어카를 빌려 집을 신기도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고현면에 있는 대계마을이다. 산 중턱에 위치한 이 마을을 방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지라 힘을 내서 찾아가기로 했다.

어르신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중증 환자로 자리에 누워계셨다. 스스로 몸을 돌려 눕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라 할머니께서 계속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다. 방문지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그중에서도 심한 편에 속했다. ‘누워 계시는 분을 어떻게 도와드리지?’ 적당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결국 팀원들과 의논하여 할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선 할아버지의 상체를 살짝 들고 그 틈에 컷트보 2장을 깔았다. 그리고 누워진 상태로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자세가 편치 않아 보여 머리를 깎는 손길이 빨라졌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깎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중에 머리를 다 손질해 드리고 나니 땀이 얼마나 많이 나 있던지... 예전에 내가 병수발을 했던 시할머니 생각에 더 정성을 들였나 보다 싶었다.

나는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지셨어요”, 하고는 다음 달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한 달 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문앞에서 그분들을 불렀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단다. 그때 이발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모두들 멍하니 서 있자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가는 길 예쁘게 해줘서 고맙다며, 이쁜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당시에는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종종 겪게 될 일일 것이다. 이 밖에도 방문 때 이전보다 병세가 나빠진 분,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셔야 했던 분 등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괜히 시작한 건 아닌지, 그랬다면 모르고 지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절망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매달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찾아 뵈면 딸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힘을 내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찾는다.

머리 스타일은 사람의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어르신 분들은 커트, 염색, 파마 등 조금만 머리를 손질해도 다른 사람이 되신다. 어르신들도 흐뭇해하신다. 예뻐지셨다고, 멋있어지셨다고 하면 마치 소녀, 소년처럼 수줍게 웃으신다. 조금만 신경 써드리면 이렇게 달라지시는데... 뿌듯하면서도 한편 그 분들이 더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안타깝다.

“오늘은 새 영감 얻으러 갈까다.” 뒤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의 농담을 들으며 오늘도 발걸음을 땀다. 나의 보잘것없는 기술로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설렘, 희망을 심어드리지 않았나 싶어 뿌듯하다.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다



— 두레방식품 중소기업취업지원 —

| 팜티조이 |

저는 29세의 결혼이주여성입니다. 7년 전에 베트남에서 거창으로 시집 와 여섯 살 짜리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저는 거창군 다문화센터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로부터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군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 주고 있어 취업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원센터장님께 소외계층지원사업에 참여하



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얼마 후 거창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님과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 임금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취업할 업체는 거창군 일자리센터에서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적합한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 상담사님과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짧거나 농사일을 거들고 하루 얼마씩 받는 식이었습니다. 일은 어쩔지 몰라도 임금이나 일하는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도 더러 보았기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달랐습니다.

얼마 후 일자리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레방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면접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봉급, 근무시간 등도 안내받았습니다. 공장장님을 만나 면접을 본 저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국장, 식혜 같은 먹을거리를 만들

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가보니 너무 깨끗하고 같이 일하게 되실 아주머니들도 인상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료들이 저를 많이 돌봐주고 일도 잘 가르쳐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해져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 말고도 소속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이나 같은 결혼이주여성들 말고는 모임이나 관계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제게 직장이 생기고 동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아이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6개월의 기간이 끝나도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만드는 식품을 전국의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저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센터, 거창군에 감사드립니다.

나 라응억짼, 이제는 라성희입니다.



—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사업 —

| 라성희 |



2013년 이른 봄, 용기를 내어 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인턴에 응시하였습니다. 되리라는 확신도, 기대도 없었지만 막상 탈락하니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잘살아보겠다는 희망은 무너졌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좌절감으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업신여김, 이유

도 모르는 남편의 폭력, 언어에 문제를 보이는 아들,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힘을 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4년 동안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프고 기가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걸도는 것 같아 나 자신이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안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에게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인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다문화가족이 센터를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결혼이주민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수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베트남어 통역도 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아이를 업고 센터에 오는 결혼이주민들을 보면 모두 내 동생 같고 아이들은 조카같이 사랑스럽습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 남편이나 시댁가족들과 소통이 안 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차이와 사소한 오해에서 오는 불만들을 해결해주고 그분들이 다시 힘을 내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이 잘되었을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보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대인관계며 컴퓨터, 서류정리 등 센터업무도 다른 결혼이주민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실력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았고, 곧 컴퓨터활용능력시험도 볼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의 봉사단인 ‘레인보우’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위한 악기연주팀도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한 지난 10개월이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많은 동생과 친구가 생겼으며, 결혼이주민의 다양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소한 일로 남편과 싸우기도 하였고 돈을 벌기 위하여 가족을 등한시하고 일에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며,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도 해줍니다. 제 경험을 알리고 돈을 버는 것 이전에 우선 정확한 한국어를 익히고 아이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취직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저를 언니라 부르며 잘 따라주는 동생들이 고맙고, 언어발달이 늦어 걱정하던 아들에게 언어지도를 해주신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에게 자극을 주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신 센터의 여러 선생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곧 계약기간이 끝나 센터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한국사회에서 다른 일을 찾을 용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실 정리정돈을 끝내고 선생님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틈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밖에까지 나와 제게 잘 가라고 인사해주는 센터장님의 모습에서는 친절엄마같이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부족한 점을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신 센터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생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이팅!”을 힘차게 외쳐 봅니다.



◀ 한라산 털진달래

제주

제2의 인생, 동심으로 날아오르다 나까츠루 미사코 ●

제2의 인생, 동심으로 날아오르다



— 다문화여성 일본어 강사 —

| 나카츠루 미사코 |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가정주부 미사코입니다. 그동안 결혼을 통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저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익히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 우연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자리인 셈이지요. 이런 것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이지...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온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사이를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아이들과의 즐거운 일과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만들기를 활용한 체험놀이입니다. 그중에도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게 일본식 씨름 즉 ‘스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스모를 하는 사람을 ‘리키씨’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각자 자기 리키씨를 만들어서

상자 위에 세우게 합니다. 맞은 편에서도 자기 리키씨를 올리죠. 그런 후에 서로가 집 계손가락으로 리키씨를 움직입니다. 인형으로 하는 스모 대결인 것이지요.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어합니다. 선생님들까지 합세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형제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다른 한국 선생님들은 물론,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서로 살아온 문화와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의 예쁘고 귀여운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세 친해진답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최고의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해보곤 합니다.

어린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며 희망찬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진정 순수한 의미에서의 문화교류가 시작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된 제2의 인생, 나와 같은 처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다문화강사님들,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한국 선생님들... 모두가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글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 우리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친선 도모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미숙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체험수기
희망으로 피어난 행복일자리

인 쇄 2013. 12
발 행 안전행정부 지방경쟁력지원단
인 쇄 처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02)739-2221